



모든 소명 사랑이고 위대한 것

이낙희 신부 편집자

차례

머리말	7
(I).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9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주님께 누구인가?	10
당신이 그리스도를 찾기를!	11
당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13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15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16
(II). 당신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20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20
“가능한 경우 하늘을 보고 별을 세십시오.”	22
둘 사이에 공유	25
당신은 새로운 길을 만들 것 입니다.	29
(III). 우리의 진실된 이름	35
자유롭고 끝나지 않은 것	3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37
숨겨진 보물	40
내 능력과 적성의 적용	43
가득 채워진 삶	44
(IV). 어떻게 성소를 발견하는가?	48

불안한 마음.....	49
자애로운 존재	50
기도를 통해 결론 맺기.....	52
계기	54
영적 지도의 도움.....	57
(V). 오푸스데이의 소명.....	61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다.....	62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가까이 있다.....	64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67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68
(VI).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독신에의 성소.....	74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75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의 심리학	76
요한, 독신의 마음	78
마음들을 깨우치기	81
날마다 자라도록 부름받은 은사.....	83
(VII). 사랑에 응답하기. 혼인 성소.....	87
좋은 여행 되시기를	88
진정으로 삶이 시작될 때.....	89
하나의 ‘예’는 큰 범위를 갖는다.....	91
고통을 당하기 싫은 마음은 평생을 사랑 없이 보내리라	95

(VIII).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것.....	102
성인들의 부모님.....	103
성인들의 스승님.....	106
성인들의 안내자.....	107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때.....	110
(IX).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115
나에게는 어떤 길이?.....	115
교회와 함께하는 여정.....	117
함께하는 식별.....	118
신앙의 도약: 하느님께 대한 신뢰.....	119
(X). 우리는 사도들이다!.....	125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126
세상의 소금, 빛, 누룩.....	127
능동적 자발성으로.....	129
따뜻함을 주는 영적 빛.....	132
(XI).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138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139
자유 의 계단.....	141
그리스도의 성혈에 스며들어.....	143
성체적 일치.....	144
(XII). 신실함의 열매.....	147

우리 안의 천국.....	148
굳건하고 자비로운 마음.....	150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152
하느님은 언제나 그대로이시다.....	154

머리말

복음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아, 베드로, 마태오, 마르타, 마리아와 라자로, 니코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고, 행동으로 가득 찬 역사의 한 장면들입니다. 주변의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의 부르심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젊은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위대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불평등이 극복되고 모든 사람이 지상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것들을 원합니다. 선한 것들을 원합니다» (베네딕토 16 세, 연설, 2005 년 4 월 25 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에게 의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 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19 년 3 월 25 일, 286 항).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받은 것에 뿌리를 내리지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음으로써, 또한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사제들이 쓴 글들을 모은 이 책은 이러한 발견을 돕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교황님의 가르침, 성인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현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성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F. 오카리스, 아르헨티나, 2018 년 8 월 5 일)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현실을 폭넓게 다루는 세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더 길며, 다양한 소명의 길과 소명 식별의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주님을 따르지 몇 년이 지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묵상하라는 초대입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16 세 때 자신의 마음이 “위대하고 사랑이 되는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습니다. (A.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97 쪽). 우리 또한 발견하고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젊고, 언제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르하 데 레온 신부

(I).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빠,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라빠’ 는 번역하면 ‘스승님’ 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이 복음서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깊은 감정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주님과 의 만남일 것이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인이 되는 것이란, 단순한 윤리적 결정이나 고상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과 결정적인 방향을 잡아 주실 그분과의 만남을 일 컷 는다.”[5]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상기시켜 주신 것도 특별하다: “저는 모든 곳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과의 개인적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둡시다; 나는 당신들 모두에게 매일 그렇게 하시라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6]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초대를 갱신하며 가장 젊은 사도인 성 요한의 발자국을 따라봅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 나는 주님께 누구인가?

네 번째 복음서는 젊은 요한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멋진 구절을 사용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다. 이보다 더한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 시간이 흘러도 이 신념은 전혀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 졌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1 요한 4:10).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요한을 크게 만들었고, 죽음 바로 직전까지도 가지고 있던, 그 깊고 전염성이 있는 기쁨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의 복음을 읽을 때 느껴지는 행복, 그 모든 것이 그날 요르단강 옆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젊은 사도가 마음으로 느꼈던 이 만남을 느껴보았는가?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평생 신앙인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가끔은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내 인생에, 오늘, 지금,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찬찬히 믿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먼저 물어봐야 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 [7]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약간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주님께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찮은 나의 존재란? 진화의 결과?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일 뿐... 누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를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인들을 바라본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비슷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다: “당신은

주님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이며, 그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 뜻은 당신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며,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당신이라는 반복될 수 없는 개성은 주님께 중요합니다.”[8] 그가 알아낸 것은 - 모든 성인들이 알아낸 것은 -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세상 안에 있는 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친구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중요한 일이므로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평생 동반자로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설령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이다.

이 모든 것은 과장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를 나의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3-15).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아주 유의미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아 계시고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9]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누구인가? 나는 그분께서 깊이 사랑하는 그분의 친구다. 나는 그분의 심장박동이다. 이것이 그분께 나의 존재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찾기를!

1933년 5월 29일, 젊은 건축과 학생이 호세마리아 성인과 함께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름은 리카도 페르난데즈 발레스핀(Ricardo

Fernández Vallespín)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Fernández 는 회상했다: “신부님께서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고 제가 더 잘 할거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헤어질 인사를 하기 전 그는 책상 위에 그가 읽던 책의 첫 장에 이 3 가지를 적으셨어요: 당신이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10]

요한 사도는 자신이 누구를 정확히 찾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성취된 삶을 갈망했다. 그는 일하고 돈 버는 삶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다… 그의 마음은 쉬지 못했고 그는 그러한 불안을 멈추고 싶었다. 때문에 그는 세례자 요한을 따랐다. 그리고 그가 세례자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옆을 지나가셨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이시다! 그리고 그와 그의 친구 안드레아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요한 1:36-37).

우리는 젊은 사도들의 발자국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쉬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만족하지 못할 때, 세속적인 삶이 마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때, 세상적인 물질의 만족 이상을 원할 때 그것에 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이 했던 것 보다는 쉬울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이가 말했다: “보통 우리는 어릴 때 신앙인이신 부모님을 통해 주님을 찾는다. 그리고 나중엔 선생님, 친구, 지인들이 주님을 향한 눈길을 잃지 않도록 많은 방법으로

도와준다.”[11]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찾는 일이다: “절실하게 그분을 찾아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라.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분을 이미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할 수 있고 이미 그를 알아가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며 천국에서 그와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12]

당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요한과 안드레아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조금 어리둥절 했을 수도 있겠다. “당신이 하느님의 어린양 이십니까?”라고 물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 그분에 대해 알고 있던 전부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 오시는걸 보시곤 돌아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요한 1:38).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고 쉬지 않는 마음에 감동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찾을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성호세마리아는 그의 아주 개인적이고 예상치 못한 예수님과 만남을 잊지 못한다. 젊은 그는 계획과 이상으로 채워진 마음의 청년이었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린 다음날 아침, 그는 집을 나서는 눈길 위에 놀랍게도 맨발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맨발의 수사와 이야기하였다. 이 경험은 그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른 이들도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나도 주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13]

그날, 요한과 안드레아처럼, 젊은 호세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자신의 발자국도 그 눈 위에 새겼다. 다른 이들도 그 발자국을 똑같이 보았겠지만, 그 어린 소년에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싶다는 틀림없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예수님의 첫 친구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 1:38-39)

누군가 우리를 친구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을 일으킨다. 그가 우리를 걱정한다는 것, 그가 우리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찾게 만든다. 그 발자국은 성 호세마리아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젠 그의 아주 깊은 마음 안에 그의 경건한 삶을 향한 ‘신성한 움직임’ 이 시작되었다.” [14]

하지만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후는, 그분을 친구로 두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며,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며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것, 우리 이웃 안에 가장 필요 한곳에 계신 그분을 보살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그분께 알리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계획과 실패를 친구에게처럼 나누는 것이다. 결국 기도 란: “그분과 친구 간의 우정을 키우는 일,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과, 오로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15] 예수님과 온 종일 함께했던 요한과 안드레아처럼 말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젊은 요한에겐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물론 아직도 긴 길이 남아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 팔레스타인 지방을 걸었던 경험; 누군가의 마음 안에 기쁨과 기적을 가져다 준 말씀들;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 추방당한 이들의 애정 어린 돌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대화들, 요르단 강 옆에서 어느 날 오후에 시작되었던 그 대화는 한평생 그의 삶 안에 존재했다.

우정이 우리를 얼마나 깊게 바꿀 수 있는지 모두 경험해보았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기 때문이며,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정은 두 친구가 “두 몸을 지탱하는 하나의 영혼과 같은 영혼”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결합된다.[16]

이런 의미에서 젊은 사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와 그의 형제인 야고보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으며,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았을 때 그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밀어냈을 때,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다(루카 9:54). 그렇지만 조금씩

예수님과 우정이 커가며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우리 하나하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 성 호세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눈 위의 발자국은 그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깊은 신념을 주었다. “나는 사랑의 친밀함을 느꼈으며, 나의 마음이 찾고 있던 그 큰 무언가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7]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목소리, 복음 안에서 듣는 메아리 “나를 따르라”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요한은 자신의 지나간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에 달렸는지 되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일하신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은 더 위대한 일을 하게하며, 더욱 완벽함을 추구하는 욕구를 키운다. 사랑은 일어나게 하며, 안 좋은 것들로 주저앉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후의 세상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오로, 바르톨로메오,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세상 안에서 우리 주님의 존재는 그 당시와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현실이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미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보다 각자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함께 회계하고,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심을 봉사로, 원한을 용서로 변화시키기 위해, 내 안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다(요한 15:9).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젊은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된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는 그의 삶을 결정짓는 사명을 받는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마르 16:15). 우리 또한 잠들지 않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고 따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분께서는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나뉠대로 도움을 청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로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적인 노력의 여정에 동참하라고 청하신다.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 자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라고 청하십니다.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표시를 남기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거절과 분열과 공허의 길을 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19]

보르자 아르마다 신부

[1] 교황 프란치스코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서한, 2017 년 1 월 13 일.

[2] 위의 자료.

- [3] 페르난도 오카리스, 아르헨티나 청년들과의 만남 기록, 2018 년 8 월 5 일.
- [4]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86 쪽.
- [5] 베네딕토 16 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2005 년 12 월 25 일), 1 항.
- [6]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2013 년 11 월 24 일), 3 항.
- [7] AGP, 도서관, P03, 2017, p. 146.
- [8] 성 요한 바오로 2 세, 카자흐스탄 청년들에게 한 연설, 2001 년 9 월 23 일.
- [9] 베네딕토 16 세, 일반 알현, 2006 년 8 월 2 일.
- [10] “길”, 비평-역사판, 382 항 해설.
- [11] “지나가시는 그리스도”, 1 항.
- [12] “하느님의 친구들”, 300 항.
- [13]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85 쪽.
- [14]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85 쪽.
- [15] 아빌라의 테레사, “그녀의 생애”, 8, 2.
- [16] 성 그레고리오 나지안주스, 설교 43.
- [17]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86 쪽.
- [18]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제 3 권, 제 5 장.

[19] 프란치스코 교황, 크라쿠프 세계 청년의 날 청년들과의 기도 밤,
2016 년 7 월 30 일.

(II). 당신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 개인의 소명을 분별해 나가는 여러 이야기 중 그 둘 번째 이야기.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부 문명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칼데아인...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런 문화는 오늘날 우리와 멀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리적 지형은 우리 가족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까지 아브람 이었습니다. 성서는 그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850년 전에 살았다고 알려줍니다. 4천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특히 미사에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23]로 기억합니다. 그에게서 우리들의 가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역사에 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우, 하느님의 요청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12:1). 그가 왔을 때: 모세, 사무엘, 엘리야스 및 다른 예언자들 ... 모두가 그들을 초대하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각자가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2). 더욱이 그분은 그들 각자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에게 아낌 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 : 1-40).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분 부르심의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얼굴인 나자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남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안드레아...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감사하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인류 역사에서 은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분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천 년 동안 하느님께서서는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에게 수천 개의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성인으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묵시 7: 9), “역사의 주인공”인 미지의 성인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문을 계속 찾아 두드리고 계십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예언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사야 43:1). 그는 이 말을 묵상하는 것은 “별집에서 나오는 꿀처럼 달콤하다”[24]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 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집에서 나오는 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의지하시고, 각각의 남자와 여자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은 자신의 이름을 하느님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접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하늘을 보고 별을 세십시오.”

위대한 성인들의 삶의 연속 상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은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경험했습니다.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는 모두 안 좋은 순간을 보냈습니다.[25] 예를 들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이사야 49:4).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의미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쉽게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실패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난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언자는 스스로 불만을 외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인식합니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사야 49:6). 우리는 약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진실은 아닙니다.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약화 시키고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넓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더 좋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26]

신성한 부르심은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에게 중요하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소유 한 것이 아닌, 당신이 무엇 인지에 의존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당신이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휴대 전화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세련된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처럼 당신을 걱정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27] 그분의 부르심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할 수 없는, 작은 만족에 헌신하는 사소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는 당신의 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 말도 안되는 관심 또는 사소한 야망에 우리를 구속했던 많은 사슬에서 우리 자신을 느슨하게 여깁니다.”[28]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자유를 그 사소함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고,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인 그분 사랑의 큰 지평을 열어 주십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상 생활의 이유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재, 과거와 미래,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한 깊이와 새로운 차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제 그들의 진정한 관점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로 자신이 동참한다고 느낍니다.”[29]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약속에 의해 신성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창세기 12:2) - 당신의 삶으로 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을 펼치는 것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밝히고 의미로 채우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30]

동시에, 소명의 빛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인간의 위엄으로 측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즉 삶에서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이름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위엄은 진정으로 위대한, 유일한 계획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계로 측정 됩니다.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역사 책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영혼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만 알게 될 것입니다.”[31]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금!”[32] 그것을 더 발전 시키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을 발견 하도록 하느님께서 빛을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자유가 응답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형성하는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33] 인간의 응답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촉진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건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이 꿈꾸신 우리의 삶을 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명확한 형태를 취하는”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것은 우리의 결단력과 창의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우리가 꿈을 꾸다면, 꿈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꿈을 꾸는 자들은 하느님과 함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창세기 15:5).

둘 사이에 공유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운명과 일치
시키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기 12:3).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공유 된 주역” 중 하나
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느님, 하느님과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느님”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34]

부르심이란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위한 모든 것”은[35] 하느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마르코 3:14). 그러므로 우리도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임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참된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계획에 들어가는 초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순종 하라는 권유 (참조, 요한 15 : 8). 그러므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온 세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또는 오히려: 우리에게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격려 하려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그들에게 처음에는 두려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알려지지 않은, 더 넓은 지평, 우리를 찾는 하느님과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며,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비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침착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거의 항상 두려움과 함께 행해졌으나 침착한 성찰로 극복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의 용기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초대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6]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선거 때에 이 말을 다시 언급하면서 “교황은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 자신을 연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박탈 당할 위험이 있습니까?” [37]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6 세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면, 우리는 삶을 자유롭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정 안에서만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우정 안에서만 인간 존재의 큰 잠재력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이 우정 안에서만 아름다움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8] 그리고 그는 성 요한 바오로 2 세의 조언에 자신을 일치 시키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삶의 오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고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줄 때, 우리는 그 대가로 100 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활짝 열어 두십시오 --- 그러면 여러분도 참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9]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우리에게 상기 시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건들을 비우라고 요구합니다.”[19]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인들이 했던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이 길을 따름으로써, 두려움은 결국 깊은 감사에 굴복합니다: 나를 굳세게 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 티모테오 1:12-13). 우리 모두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약점과 죄로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방해 받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직의 모토처럼 즉, *Miserando atque eligendo* (자비의 눈을 통해서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 우리의 빈약함을 간과하는 것- 은 하나 이며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바오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동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확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 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리피서 1:6).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오푸스 데이의 첫 번째 충실한 신앙인들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분은 먼저 도구로 쓸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40]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은 신뢰의 초대입니다. 오직 신뢰만이 우리 자신의 힘과 재능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힘과 재능으로 사는 경이로움, 우리 자신을 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를 때와 같이, 우리도 같은 밭줄을 공유하고 있는 바로 위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극심한 공포나 현기증으로부터 자신을 극복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신뢰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조차 말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이제 언제나 “성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그분 자신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티모테오 2:13).

당신은 새로운 길을 만들 것 입니다.

아브람은 주님께서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창세기 12:4). 그리하여 그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영원히 바꾸는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느님의 연속적인 부르심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그 곳으로 가거나, 악한 사람들에게서 도망 가고, 아들을 가질 가능성을 믿으며, 아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심지어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대답은 하느님께 계속 네 라고

말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느님과의 친교 뿐만 아니라, 참되고 완전한 지속적인 자유로 표시됩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 자유에 새로운 지평을 줄 뿐만 아니라, “무언가 훌륭한 것은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41] 또한 우리는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다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한 - 또는 여행자를 놀래키지 않는 철도가 완벽하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첫 번째 부름에 대한 충성은 우리의 새로운 결정,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이 매일 우리의 자유를 키우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사랑의 길과 마찬가지로 - 진흙이 안 묻은 날개와 작은 것들의 노예가 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대의 위대함은 아주 훌륭합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미덕의 성장이 확대되어, 우리를 더욱 우리 자신 답게 만듭니다.

오푸스데이의 초기 몇 년 동안, 호세마리아 성인은 그에게 온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여전히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세상에

열어 달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길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산을 너머, 당신의 발자국으로 길을 만들 것 입니다.”[42] 그는 모든 성소의 “열린” 본질을 가르쳤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경작해야 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발자국으로 길을 만드는 것 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명확해 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의 삶이 발전함에 따라,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자유 사이의 훌륭한 동맹 덕분에 그 길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소명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이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것에 사랑스럽게 응답하는 개인의 자유 사이에 표현할 수 없는 대화의 역사입니다.”[43] 우리의 역사는 종교적 영감에 대한 주의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창의력이 서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나자렛에서 하느님께 “예”로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또한 평생 동안 그녀의 하느님의 뜻에 대한 영원한 관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빛으로 가득 찬 모호성”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모님을 완벽한 사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녀에게 위탁합니다.

니콜라스 알바레즈 아스투리아스 신부

[23] 로마 미사 경본, 성체 기도 I.

[24] 하느님의 친구들, 312 항.

[25] 예를 들어, 민수기 11:14-15 참조: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실 거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레미야 20:18: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통과 슬픔을 보며 수치를 당하며 내 생을 마쳐야 합니까? 또한 열왕기상 19:4: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26] 교황 프란치스코,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2018 년 3 월 19 일), 131 항.

[27] 교황 프란치스코, 세계 청년의 날 폐막 미사 강론, 크라쿠프, 2016 년 7 월 31 일.

[28] “하느님의 친구들”, 38 쪽.

[29] “지나가는 그리스도”, 45 쪽.

[30] 페르난도 오카리스, “보게 하는 빛, 원하게 하는 힘”, “알레테이아”, 2018 년 9 월 20 일.

[31] 십자가의 성녀 테레사 베네딕타(에디트 슈타인), “은밀한 삶과 현현”: GW XI, 145.

[32] 십자가의 길, 제 5 처, 2 항.

[33] 페르난도 오카리스, “교회 안에서의 오푸스 데이 소명”, “교회 안의 오푸스 데이”, Scepter Publishers.

[34] 출애굽기 3:6; 마태복음 22:32 참조.

[35] 성 호세 마리아, “사적 노트” IV, 296 항, 1931 년 9 월 22 일 (“십자가의 길”, 비평-역사판, 813 항 해설에서 인용).

[36]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취임 미사 강론, 1978 년 10 월 22 일.

[37] 베네딕토 16 세, 교황 취임 미사 강론, 2005 년 5 월 25 일.

[38] 베네딕토 16 세, 교황 취임 미사 강론, 2005 년 5 월 25 일.

[39] 베네딕토 16 세, 교황 취임 미사 강론, 2005 년 5 월 25 일.

[40] 교령, 1934 년 3 월 19 일, 48 항.

[41] 참조: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창립자” 제 1 권, 86 쪽.

[42] “길”, 928 항.

[43] 성 요한 바오로 2 세, 사도적 권고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1992년 3월 25일), 36 항.

(III). 우리의 진실된 이름

성경 제 1 권은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 하느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창세기 1, 1-25). 그러나 인간을 창조할 때가 다가오자, 다른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단순히 종이나 어떤 존재를 만들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름을 부여하고, 직접 만드시고 각별하게 부르심을 받아 존재하는 생명체이자 하느님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창조 때 말씀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받은 이름 말고도 우리는 삶의 끝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묵시 2:17).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주어질 이 새로운 이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명의 신비와 마주치게 됩니다.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밝혀지는 개인적인 신비를 말입니다.

자유롭고 끝나지 않은 것

장미, 떡갈나무, 아니면 말은 그것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자라서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그것들은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단순히 ‘하나 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성과 이름을 가진 독창적인 사람, 복제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지, 그리고 우리의 세상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은 지 꿈을 꾸도록 촉구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순진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만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꿈을 꾸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자아의 가장 높은 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포함하여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욕망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기 2:15).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셨고, 그래서 성 호세마리아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열정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44]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삶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발전시키도록 온전히 맡기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을 키우도록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당신들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세계 청년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이 꿈을 꾸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려고 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과제입니다.”[45]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몬은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그의 형제 안드레아를 데려갑니다. 갈릴래아에서 유대아까지는 꽤 먼 길이었지만, 충분히 갈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지 이미 수 세기가 지났고, 지금 새로운 예언자인 요한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참 예언자들 중 하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는 요르단강 독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날 오후를 예수님과 이야기하며 보냅니다. 안드레아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요한 1:41-42). 시몬은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 메시아가 과연 도착한 것이었을까요? 성서의 예언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곧 변하려는 것일까요? 그들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시기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 불릴 것이다”(케파는 돌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전에, 시몬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에게 맡겨진 미션을 통해, 복음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계속 발견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곧 갈릴래아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배를 물에서 조금 저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낚시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시몬은 분명 그렇게 하기가 조금 꺼려졌을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사람들과 대화를 마쳤을 즈음,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요청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이라”(루카 5:4). 그날 밤, 물고기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환한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던 시몬에게 이 요청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요청에 따랐고, 그는 곧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배에 타고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루카 5:10)라고 대답하십니다.

시몬이 누구인가요? 그의 가족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갈릴래아의 어부일까요? 그는 몇 년을 어부로 살았고, 낚시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 그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심으로써 그는 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인이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참 모습을 말이죠. 이 신성한 부르심을 듣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는 배를 저어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루카 5:11). 베네딕토 16 세는 이 복음 장면을 떠올립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로마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그가 주님을 위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자신이 이러한 대단한 모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대했고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부르시는 분을 믿었고 마음의 꿈을 좇았습니다. 용기 있고 관대하게 ‘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46]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행할 미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하느님과 함께 삶을 나누자는 부르심,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창조와 같은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개인적인 부르심을 포함하듯이, 개개인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삶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갈릴래아 호수 연안에서 이천 년 전에 살았던 어부를 오늘날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몇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는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를 여전히 공경하겠습니까?[47]

숨겨진 보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 안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의 삶을 회상하는 것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과연 베드로는 자유를 잃었을까요? 이 결정이 가장 자유롭고 그의 삶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가끔 우리는 자유를 아무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는 우리에게 단지 잠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선택으로 축소됩니다. 가령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것인지 치킨을 먹을 것인지, 축구 또는 농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이 노래를 또는 다른 노래를 들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과 동시에 삶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주는 다른 유형의 선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자유는 ‘자유롭게’ 하는 능력 속에서 참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잠깐의 결정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비슷하게, 어떤 젊은 사람이 의사가 되기로 한 것이 대단한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재정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이 미래에 내릴 결정에 제약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계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삶을 의미로 채우는 사랑이나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히 세례 때 받은 이름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또는 아내의...’나 ‘의사...’도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은 더 확실한 모양을 띄게 되고, 그들의 삶은 더 확실한 의미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런 유형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특정한 선물과 자질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미션인 ‘보물’을 보여줍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보물은 사실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 말이죠. 그리고 미션은 하느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삶과 함께 그것을 포용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그것의 모든 측면을 만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처럼, 비유대인의 제자였던 바오로처럼, 그리고 구세주의 어머니이자 주님의 종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안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미션을 포용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워 놓게 만듭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또한 우리는 성 바오로와 함께 이렇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골리 3:7-9).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 지를 아는 것은 처음에는 좀 불확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 적성, 경험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이름은 마치 세상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물,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진정 나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일까?

내 능력과 적성의 적용

하느님께서서는 단순히 우리 삶의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죠. 같은 맥락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는 사랑과 함께 매일 더 깊게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 동안 이어집니다.

“그대가 “네”하고 말한 이래로 시간이 그대의 지평들을 넓혀 주었으며, 그 지평들에 새롭고 더 밝은 색채를 주었고 그리고 매일 그 지평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대는 “네”하고 말해야 합니다.” (발고랑 32).

성베드로는 주님께 ‘네’라고 수 없이 많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요한 6:60-71).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요한 13:6-10).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남았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잘 못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를 꿈꾸었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행동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 배신자가 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나약함과

정면으로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결코 돌리지 않음으로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한번의 나무라심도 없이, 사랑에 찬 모습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발고랑 964).

소명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려고,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온 삶 안에서 자신을 나눠주고 사랑이 가득 찬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부르심은 그가 갈릴래아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결정적인 모습을 갖춥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었고, 얼마나 하느님께서 그를 가련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으며, 그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신성하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요한 21:17). 이것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속 깊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봉사하는 놀라운 길 위에서 말이죠. 특히, 목표가 아닌 길 말입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매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가득 채워진 삶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전통은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의 순교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형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힘세고 굳건한 기질을 가졌던 젊은 시절의 삶, 갈릴래아에서 어부의 삶 등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 뒤로 놀라운 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즐거움과 고통도 수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랑으로 그의 삶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의 삶은 분명히 크게 변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요르단강 근처에서 시몬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시몬을 어떤 특정 인간이 아닌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반석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행할 모든 좋은 것들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재능을, 세상을,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를 것을 제안하십니다.

우리의 됄됨이는 덜도 더도 아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자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 12:6-8)

베드로는 벳사이다의 어부로서 확신을 갖고 있던 자신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과 땅 사이의 중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세기에 걸쳐 반복되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오푸스데이에 처음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고,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풍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꾸세요, 당신의 꿈은 부족해질 것이다.” 아니면 교황님이 철야 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축복하시길.”[50]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봉사하고, 충만으로 가득 차 젊은 남성과 여성 개개인에게서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보았듯 말이죠. 우리 또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묵시 2:17)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루카스 부크 신부

[44] 호세마리아 성인, 발고랑 No. 290, 하느님의 친구들 No. 206: “열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대화중, nos. 113ff.

[45] 프란시스코 교황의 세계 청년의 날 기도중, 2016.6.30

[46] 베네딕토 16 세 교황의 일반 알현, 2006. 5.17

[47] 가톨릭 교리서 No. 936

[48] 호세마리아 성인, 밭고랑 No. 32

[49] 호세마리아 성인, 밭고랑 No. 964

[50] 프란시스코 교황의 세계 청년의 날 기도중, 2016.6.30

(IV). 어떻게 성소를 발견하는가?

사람들 만큼이나 많은 성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신만의 성소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유대의 해가 졌습니다. 니코데모는 불안한 마음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그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소곤소곤 이어지는 대화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나사렛 사람의 대답은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요한 3:8). 모든 성소는 신비이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너무 이상한 것이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넷 있으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 다니는 뱀의 길 바다 가운데를 떠다니는 배의 길 젊은 여자를 거쳐 가는 사내의 길이다.” (잠언 삼십장, 30, 18-19)

더군다나, 하느님의 도움 없이 누가 영혼의 은총을 밝혀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갈망, 불확실함, 징조, 약속의 형태로 들려오는 그 신성한 영혼의 숨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성령의 은총의 이끄심 없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것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성소를 찾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성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식이나 엄격한 방법과 규칙 같은

것들을 권할 수 없습니다”[51]. 그것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원래의 성령의 고유한 움직임에 궤도를 놓으려는”[52] 시도와 같습니다. 라칭거 추기경은 언젠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길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 수 만큼 있습니다.”[53] 사람들 만큼이나 많은 성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신만의 성소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는 길에서 드러나는 가장 빈번한 이정표 중 몇 가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니코데모는 마음 속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감동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는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기적에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요한 2, 16)이라고 부르시며 그곳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그는 마음 속에 억누르기 힘든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가 메시아일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문과 의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고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안절부절 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는 불만족스러웠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그러한 탐구가 옳다고 말씀해주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은...”(마르코 10:21). 또한 여기서 사도 안드레아와 사도 요한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요한 1:38). 이 사람들은 모두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험으로 만들어줄 놀라운 전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고 더 많은 것에 굶주렸으며 꿈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호세마리아 성인에게 어떻게 사도직에 대한 성소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아들이. 주님이 언제 부르시는 지 깨달을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 불안한 마음과 불만족스러움이 드러난다... 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 [54] 자신의 성소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것은 종종 불안한 마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애로운 존재

그러나 이 불안함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마가 성인은 그리스도께 다가갔던 청년의 모습을 회상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웬지 모르게 우리는 마음 속에서,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택하는, 편애의 존재를 느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현존하시고, 만남과 친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하느님의 자애로운 존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더 큰 친밀함에 대한 굶주림, 내 삶에서 하느님에 대한 마음 속 갈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대, 세상에 하느님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 우리의 재능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 주어진 재능을 진실로 맡기는 삶에 대한 비탄, 이곳 저곳의 수많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각, “저는 왜 이렇게 많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적습니까?”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겉으로 보기에 우연한 사건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휘젓고 각인을 남깁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영혼에 신성한 안식을 심어 주기 위해 누가 봐도 무해한 것들로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화 데레사 성녀가 책을 읽다가 우연히 구세주의 상처 입은 손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를 감동시킨, 그토록 인간적이고 신성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를 감동시켜 매일의 영성체, 정화, 고백, 고해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55]

또한 그 자애로운 존재는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각인을 남기는 사람이나 복음을 사는 방법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만남일지라도, 대개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몇 가지 성경 말씀은 아마도 평생 동행하기 위해 마음 속에 각인되어 내면에 깃들고 달콤하게 공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 말씀 중 하나인 “목마르다”가 켈커타의 테레사 성녀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 16, 26).

그러나 아마 그러한 두려운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우리가 ‘호감’ 또는 ‘반감’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씀과 함께, “불안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 달콤하거나 불가피한 목소리, 귀찮은 동시에 자애로운 목소리”[56] 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르심은 거절을 야기하는 동시에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자유라는 위험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단념하도록 떠깁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기를 꺼립니다.” [57]

기도를 통해 결론 맺기

니코데모는 불안함에 떠밀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애로운 모습은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스승은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삶,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니코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마주한 그 만남에서 니코데모는 조금씩 그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점점 구체화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성소를 밝혀낼 때, 불안한 마음이 그와 관련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 중 하느님과 대화에서 읽히고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주님,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무엇을 위해 제 마음에 이러한 갈망과 애정이 있는 겁니까? 왜 이것은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께서 제게 주신 은총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러한 기도의 일상적인 결과로 하느님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어슴푸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형성된 방식, 취미와 소질을 포함하여 인생의 사건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섭리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16 세 교황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소의 비밀은 하느님과의 관계, 내적 침묵에서 울곧게 자라는 기도,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길에서 지키고 충실하고 싶다면, 선택 후 만큼이나 선택 전, 즉 결정하고 출발하는 순간에서도 진실합니다.” [58] 그래서 자신의 성소로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기도 중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의 삶을 직접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바르셨던 맹인과 같은 일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는 흐릿하게 봤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마치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계기

니코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을 뵈고 나서 2년 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졌고 그에게는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선동되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리마태아의 요셉은 그의 몸을 거두고 장사를 지내기 위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성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의 도망, 그러나 아리마태아 요셉의 충성심의 예시는 아마도 니코데모에게 개인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결심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한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과 무엇을 할 것인가?”

폭발은 심지 또는 전기 불꽃을 통해 시작되고, 주요 부분을 폭발시키는 더 민감하나 덜 강력한 폭약의 작은 양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성소를 찾는 과정에는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계기로써 길을 안내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면서 모든 불안한 마음에 반응하고 그로 하여금 특정한 뜻을 얻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감정적 무게는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에서 읽히고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는 마음 속에서 하나의 신성한 영감이 되거나, 또는 약 17 살 즈음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일어난 일처럼 초자연적인 것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9 월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축제를 즐기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깐 성당 앞을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르는 신부님과 마주쳤습니다. 어린 프란치스코는 그 신부님의 집중하는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아 그분께 고해성사를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고해성사에서 제게 뭔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반세기의 전환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안이 병병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게 하느님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찾고 싶어하지만 그 분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로 찾으십니다.” [59]

한편, 절친한 친구의 인도가 계기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하느님께 맡겨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또는 구체적인 길에 동행하려는 그의 친절한 초대입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게다가, 겐보기에는 별볼일 없으나 마음에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영혼을 자극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폭설 중에 하느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종종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를 통한 믿음과 사랑의 점진적인 성숙에서 만들어집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하느님의 빛으로 개인적인 성소에 대한 도덕적인 확신과 은총의 독려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한 뉴만 성인은 자신의 개종을 회상하며 이러한 과정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확신은 즉시 일어난다. 구체적인 어느 순간에 주어진다. 반대로 의심은 하나의 과정이다. 나는 아직 확신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확신은 반사 행동이다. 누군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개종 직전까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생각이 양팔 저울처럼 바뀌기 시작하고 한쪽 편에 더 유리하다고 의심되는 정확한 순간을 말할 수 있는가?” [60] 이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순조롭게 어떠한 전달이 성숙하게 결정되는 경향으로, 현실에서 보통 우리를 쉽게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외부 신호의 눈부신 섬광에 의한 것 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어떠한 경우든, 굴절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만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또한 그 길을 받아들이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세 마리아 성인께서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어떻게 성스러운 부름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서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61] 신비한 충동입니다. 부르심은 빛이고 충동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읽기 위해 믿음으로 빛나는 지혜의 빛은, 주님의 사랑으로 밝혀지는 그분의 초대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속 충동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그 길을 보기 위한 빛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지에 함께하길 소망하는 힘” [62]을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 지도의 도움.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뵈러 가기 전후에 다른 제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바리새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그를 북돋아준 아리마테아의 요셉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누군가의 조언과 함께 말할 수 있는 데에는 틀림없이 동행 또는 영적 지도가 존재합니다. 그 누군가는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잘 알며 꽤나 사랑합니다.

부르심은 항상 하느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한 성소를 발견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향하시고, 초대하시고,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의 과정에서 노련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길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명백히 하고 주님께 헌신하기에 앞서 내 의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편, 교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영적 지도자는 기도에서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63]. 그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 불안함 마음, 애정, 사건들을 읽고, 익히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은 자신의 부르심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 멀리 강가에서 요셉 성인과 베드로 성인에게 말을 거는 남자가 희미하게 보일 때, 그들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판단은 대체로 개인적인 길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있고 나서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두십니다. 그래서 초기의 순간을 지나 다시 의심을 갖게 되는 것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하셨고 계속 그것을 하실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사랑의 자유와 함께 마지막 발걸음을 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종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묵중한 지위를 맡으시는데, 우리는 그를 대략 관측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응시하고 인내심을 갖고 겸허하게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천사의 아뢰에 따른 침묵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스러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성모님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며 기다리셨습니다. 나자렛의 동정녀의 자유로운 대답에 모든 게 달려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년 후, 십자가 발치에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니코데모의 손에서 아들의 죽은 몸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고통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셨는지 알게 된, 새로 도착한 이 제자에게는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디에고 잘비데아 신부

[51] 성 호세마리아, 서간 (1945.5.6) 42 항

[52] Ibidem

[53] 라칭거 추기경, “이 땅의 소금”, Palabra 출판사, 마드리드 1997 년, 36 페이지.

[54]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메모, 1974 년. Crónica, 제 1 권. 529 페이지.

[55] “하느님과 대화” 역사학 단행본. Rialp 출판사, 마드리드 1974 년, 199 페이지.

[56] 성 바오로 6 세, 강론, (1968.10.14)

[57]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메모, 1972 년. Crónica, 460 페이지.

[58] 교황 베네딕토 16 세, 술모나에서 청년들과 만남. (2010.7.4)

[59] “교황 프란치스코, 호르헤 베르고글리오와 대화” 저자 S. Rubin 와 F. Ambrogetti, B 출판사, 2013 년, 48 페이지.

[60] 복자 J.H Newman, “ Apología pro vita sua”, 마드리드 2010 년, 215 페이지.

[61] 도서 “교회 안에 오프스데이” 속 1932 년 1 월 9 일 서간. Rialp 출판사, 1993 년, 148 페이지.

[62] F. 오카리스, 「보게 하는 빛, 원하게 하는 힘」. ABC, (2018.9.18)

[63] 가톨릭 교회 교리서, 2690 항.

(V). 오푸스데이의 소명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이야기와 이미지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르 4, 31-32). 작은 씨앗이 땅에 묻혀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역사가 그것과는 무관한 듯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계속 자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밤에도 자랍니다.

1928년 10월 2일, 하느님께서서는 성 호세마리아로 하여금 오직 그분만이 심으실 수 있었던 한 씨앗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큰 밭에서 자라도록 부름받은 작은 겨자씨 말입니다. 그 씨앗의 유전적 암호를 몇 줄로 기록한 메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그리스도인들. 누룩이 되는 대중. 우리의 것은 평범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수단: 전문적 일. 모두 성인이 되자! 조용한 헌신”[65].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 씨앗을 돌볼 사명을 주신 이후로, 성 호세마리아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약속이고 희망이었던 것이,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품고 많은 삶에 맛을 주는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다.

“각 성인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서 가져다가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하시는 메시지입니다”라고 교황께서 쓰셨습니다[66]. 성 호세마리아는 한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육화 시켰습니다. 그 자신이 메시지가 되었고, 그의 삶과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유익한 자취를 남겨 놓으십시오. 그대의 믿음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그대 가슴 속에 간직하신 그리스도의 불꽃으로 세상의 모든 길을 밝히십시오.” [67].

그는 그 불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첫 충실한 신자들 중 하나로 사제 서품을 받은 호세 루이스 무스키스가 즉시 감지했듯이 말입니다. 성 호세마리아와의 첫 만남에서, 성인은 그에게 아마도 아무도 전에 제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사도가 되는 것. 그리고 즉시 덧붙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이 그의 대화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 회로들이 그때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68].

자신만의 소박함과 깊이로, 라칭거 추기경은 “‘성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한 축소를 겪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단에

그러진 성인들을, 기적과 영웅적 덕행을 생각하게 하며, 성덕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덕을 그 소수에게, 그 수를 모르는 소수에게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영적 무관심 가운데서,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는 자명종처럼 외쳤습니다: 아니오, 성덕은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세례받은 각자에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덕은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영웅적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 가지 형태를 가지며 어떤 곳에서든 어떤 직업에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69].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인들은 현대 의학이 조사해야 할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대와 같은 육신을 지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70].

오푸스데이 부르심은 이러한 성덕의 정상성에 대한 의식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 이 음악의 "연주자"가 되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악보들"이 존재합니다: 복음과 사도적 저작들; 성 호세마리아의 삶과 설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보편적 성덕 부르심의 선포[71]; 그 가르침을 발전시키는 교황들의 최근 교도권[72]. 따라서 악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음악이 세계의 모든 구석에서 울려 퍼져야 하며,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무한한 변주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들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다.

오푸스데이에 영감을 주실 때,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한 길을, 모든 종류의 일상적 풍경에 육화되도록, 매우 다른 사람들의 일,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과 융합되도록 “설계된” 영성을 선물하셨습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 메시지를 많은 저작들, 강론들, 가족 모임들, 교리 여행들 등에서 전개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저 먼 지평선쯤에서 한몸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대 마음 속입니다.” [73].

오푸스데이에의 성소가 사람들을 주도성으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욕으로 가득 채우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그분과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하도록 이끍니다. “내 자녀들이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둘처럼 그분과 함께 살 정도로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 그분과 동일시되어 그분의 생명을 살 정도로 가까이, 우리가 장애물을 두지 않을 때, 성 바오로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까지” [74].

첫 번째 협력자들 중 한 명은 오푸스데이의 창립자가 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관상의 길로 부르신다”고 말했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싸워야 했던 그에게, 그것은 “진정한 발견”이었습니다[75].

다른 경우에, 성 호세마리아는 조언했습니다: “이야기하라, 주님과 이야기하라: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76] 바로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서의 관상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양육되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현실에 대한 깊고 사랑스러운 시선.

간단히 말해서: “세상 안에 있을수록 더 하느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라는 이 목표를 우리는 완수할 것입니다.”[77]. 그리고 이러한 친밀함, 그분과의 이토록 강렬한 우정이, 오푸스데이 성소에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이 길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짝트는 뿌리입니다: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부르심과,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화해시키라는 사명.

그러나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논리적으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성덕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다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푸스데이 성소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그리스도교 성소들이 세례로 전달된 생명과 성소의 수로들임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푸스데이 성소는 그리스도교 성소가 요구하는 하느님과 이웃들에 대한 헌신이나 봉헌을 받아들이고, 품으며, 인도합니다; 특별히 추가되는 유일한 것은, 정확히 수로입니다: 그 봉헌이 교회의 구체적인 기관(오푸스데이)의 일부를 이루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영성과 정확한 양성 및 사도적 수단들을 가지고”[78], 특히 일과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지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푸스데이 부르심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하며(이것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손을 잡고, 큰가족의 도움을 받아 그도전에 맞설 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자신의 내적 생활을 기르고, 지성을 비추며, 인격을 풍요롭게 하여...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그 발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1928년 10월 2일의 신적 비추임과 그에 이어진 다른 비추임들은 성 호세마리아에게 모든 사람이 성덕과 사도직에 부름받았다는 의식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촉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기관인 오푸스데이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신적 부르심을 받아들여, 매일의 현실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마태 9,36 참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영혼 때문에 목마르시고 시장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목마르다”(요한 19,2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목말라 하시고,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영혼에 목말라 하십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모든 영혼에 목말라 하십니다.” [79].

오푸스데이 성소는 하느님에 대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의 강한 “전염”을 의미합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첫 번째 거주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서두르지 말라고 그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피정에서 그는 기록했습니다: “서두름.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밀어주시는 것이다”[80]. 성 바오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재촉했습니다(2코린 5,14 참조).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고요한 긴급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81]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도우며, 섬기며,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며, 배우며, 도전과 일들, 문제들과 근심들을 나누며, 우정의 유대를 만들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곳, 일하는 곳, 쉬는 곳, 쇼핑하는 곳에서, 우리는 누룩, 효모, 소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작품에 슈퍼히어로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넓고 관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미 초기 텍스트에서 이를 내다보았으며, 오푸스데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겁쟁이들, 무분별한 자들, 비관주의자들, 미지근한 자들, 바보들, 게으른 자들, 소심한 자들, 경박한 자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병자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더 클지라도 마음이 넓은 모든 사람들”[82].

요약하면, 하느님께서 이 길로 자신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결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비참함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큰 이상들로 가득하고, 사랑하려는 열망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요한 복음에서 읽습니다-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 1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성덕의 장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푸스데이의 메시지는 그 핵심에 이러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계기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위대함과 비참함, 사랑과 증오,

원한과 용서, 전쟁과 평화의 신비로운 혼합체인 세상이 “하느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기”(로마 8, 19)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창세기”는 두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키다”와 “가꾸다”(창세 2, 15 참조). 계명의 준수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는 첫 번째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책임자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꾸다”라는 두 번째 단어로, “일하다”(보통 땅을)와 “예배하다”(민수 8, 11 참조)를 모두 의미하는데, 하느님께서서는 일을 경배와 결합시키십니다: 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성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세상을 지키고 가꾸기를 원하셨으며, 사람의 손으로, 피조물의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나자렛의 작업장에서 주님의 숨겨진 생활의 시절들이 빛이 없는 어둠의 시간들로 인식되었다면, 오푸스데이의 정신의 빛으로 그것들은 “태양빛처럼 밝아지고 (...), 우리의 날들을 비추고 그들에게 진정한 투영을 주는 광채”가 됩니다. [83].

그래서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생활 부분을 자주 묵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조용한 밀알의 성장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자신을 밀알에 비교하실 것입니다(요한 12, 24 참조).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의

작업장에서, 그 작업장-가정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에 구속을 행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성가정의 단순한 생활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사랑과 보살핌과 유용하려는 의욕으로 인해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들을 “성소적 의미”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떤 것에 부르신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간호든, 목공이든, 소통이든, 공학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그때 그는 자신의 최고의 희생, 관대함, 헌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84].

그래서, “일을 성화하는 것은 일하는 동안 거룩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85]. 이렇게, “잘 완성된 인간의 일은 하느님을 (...) 모든 것에서 발견하는 안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물질주의가 일을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진흙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86].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갱이가 숨어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숨어서 사라지는 것이 나의 몫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빛나시게 하는 것”[87].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이 오푸스테이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실 모든 남녀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란을 일으켰다면,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빛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었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알렸던 (...): 평화와 기쁨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평화와 기쁨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88].

에두아르도 카미노, 카를로스 아이셀라 신부

[65] 성 호세마리아, “내적 수기”, 35항, P. 로드리게스, F. 오카리스, J.L. 일라네스, “교회 안의 오푸스데이”, 리알프 1993, 216쪽에서 인용.

[66]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2018년 3월 19일), 21항.

[67] 성 호세마리아, “길”, 1항.

[68] “길”, 비판-역사 판본, 417항 주석.

[69] J. 라칭거, 강론, 1992년 5월 19일, “로마나” 14호(1992), 48쪽에서 인용, opusdei.org에서 스페인어로 확인 가능.

[70] “길”, 133항.

[7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인류의 빛”(1964년 10월 21일), 40항.

[72] 참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그리스도교 평신도”(1988년 12월 30일), 16-17항; 베네딕토 16세, 일반알현, 2011년 4월 13일; 그리고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2008년 3월 19일).

[73]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309항.

[74] 성 호세마리아, “주님과의 대화”, 비관-역사 판본, 101쪽.

[75] V. 가르시아 오스, “에스크리바 데 발라게르 몬시놀과의 만남,” R. 세라노 편, “그들이 본 그분”, 리알프, 마드리드 1992, 83쪽.

[76] 성 호세마리아, 타하마르 가족 모임 기록, 1972년 10월 22일 (opusdei.org의 다큐멘터리 “일의 심장”에서 수집).

[77]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740항.

[78] F. 오카리스, “교회 안에서 오푸스 데이에의 성소로서의 성소,” “교회 안의 오푸스데이”, 169쪽.

[79]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02항.

[80] 성 호세마리아, “내적 수기”, 1753항, A.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데이 설립자”, 제1권, 리알프, 마드리드 2010, 9판, 511쪽에서 인용.

[81] 성 요한 바오로 2세,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플라사 & 하네스, 바르셀로나 1994, 19쪽.

[82] 성 호세마리아, 훈령, 1934년 4월 1일, 65항.

[83]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4항.

[84]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2019년 3월 25일), 273항.

[85] F. 오카리스, “본성, 은총, 그리고 영광”, 에운사 2000, 263쪽.

[86] 복자 알바로 델 포르티요, 서한, 1975년 9월 30일, “가족

서한집”, 제2권, 63쪽 (AGP, 도서관, p17).

[87] 성 호세마리아, 서한, 1975년 1월 28일, E. 부르크하르트, J. 로페스,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에서 일상생활과 성화”, 제2권, 리알프, 마드리드 2011, 301쪽에서 인용.

[88]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0항.

(VI).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독신에의 성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 1, 27).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기원을 전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동시에 창조하셨다. 둘 다 같은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살아있는 모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은 이 사건을 다시 다루지만(창세 2, 7-25),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인다.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늘, 바다의 물들, 산을 가로지르는 강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나무들. 그러나 이 놀라운 풍경 앞에서도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 외로움에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 주님께서서는 낙원에 사는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신다: 하늘의 새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땅의 짐승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인간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때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창세 2, 18)를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신다. 마침내 아담은 자신과 같은 시선을 돌려보는 눈을 발견한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 23). 이 만남은 그에게 기쁨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정체성을 밝혀준다: 그가 누구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말해준다. 인간에게는 무언가가 부족했는데, 그것은 오직 그와 같은 다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의 이 페이지들은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다. 이론적 성찰보다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서사적 방식으로 그것들을 표현한다. 아담의 외로움은 그래서 깊은 인간학적 의미를 갖는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그 원초적 외로움에 참여하며,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89]. 하느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 18)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는 둘 다를 가리키신다[90]. 남자와 여자 모두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충만함을 향해 함께 걸어갈 길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혼인이다.

수 세기 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태초에”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키실 때, 바로 성경의 이 구절을 언급하신다(마태 19, 1-12 참조). 그리스도교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당신께로 함께 걸어오도록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함께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걸어오는 것이다.

배우자는 결혼한 사람에게 하느님께로 가는 필수불가결한 길이다. 육체가 친교와 사랑의 자기 내어줌의 무대가 되고, 성화의 재료이며 공간이 되는 길이다. 혼인의 사랑은 이렇게 몸과 영혼의 만남으로서 인간적 사랑을 아름답게 한다: 성사의 은총으로 그것에 초자연적 차원을 부여한다.

동시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 그것이 참될 때, 그것은 항상 하느님을 향한 길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여전히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충만함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때때로 그 원초적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사랑이 끝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이야기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만이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의 심리학

혼인에 관한 그 동일한 대화에서, 창세기의 가르침을 상기시킨 후, 예수님께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 남자와 여자의 상호 자기 내어줌은 하느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아니다.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은사로 “하늘 나라를 위하여”(마태 19, 12) 혼인을 포기하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신다.[91]

그분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독신으로 사셨다. 그분의 삶에는 하느님께로의 중재가 필요할 이유가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 10, 3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요한 14, 11).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이 길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이다.

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측면에서도 그분과 일치하고자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초세기부터 독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혼인을 경시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다른 길도 자신들이 시작하려는 길만큼이나 그들을 설레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혼인 생활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획을 빛나는 기쁨으로 하느님께 맡길 수 있었다.

성 호세마리아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 사랑을 그 깊이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들 가운데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마태 19, 11 참조) 형언할 수 없는 이해가 생겨날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순수한 선물이며, 지상 사랑의 중재 없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그분께 봉헌하도록 이끈다”. [92]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독신에 부르시는 이들에게 모든 참된 사랑의 근원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분의 교회 위에 쏟아진 사랑에 특별한 방식으로 붙잡힌다.

따라서 독신은 먼저 첫걸음을 내딛으시는 분께서 항상 무상으로 주시는 사랑을 반영하는 길이다(1 요한 4, 19 참조). 독신자들은 하느님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을 봉헌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유를 넓힌다.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마태 19, 29) 떠날 각오를 갖는 것이 그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기에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다 [93].

결혼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간수해야 한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빛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의 자기 내어줌은 배우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그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셔서 자신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심의 고동”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94].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 그분은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셨다. 당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는데 제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요한 11, 41-42). 우리에게는 반대로 외로움의 위험이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그것이 성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성 호세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인간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나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95]. 아래의 글에서 그가 그러한 마음을 체험했음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엄청난 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다. 사랑할 때,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애정의 ‘크레센도’ 속에서 마음은 넓어진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자리를 찾지 못할 피조물은 없을 것이다”[96].

요한, 독신의 마음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여신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3)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인간들에 대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집약한 이 말씀들은 동시에 부르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요한 15, 15). 그들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요한 13, 1) 사랑하신 그분 사랑의 대상이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친구이기도 하다[97]. “친구”이신 분께서 그들을 당신처럼 하라고 초대하신다: 그들도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이 말씀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그리스도교 성소의 기원에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울려 퍼졌다.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큰 현현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 숭고한 장면에서 마리아와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사도 요한의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난다. “진리의 순간에는 모두가 도망갈 것이다. 요한만 제외하고. 그는 정말로 행동으로 사랑했다. 사도들 중 가장 어린 이 청소년만이 십자가 곁에 남았다. 다른 이들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98].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른 청소년기부터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동했다. 우리는 그가 주님을 만난 날을 어떻게 간직했는지 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시선을 마주쳤고, 그분을 따랐으며 물었다: 스승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분과 함께 가서 하루 종일 스승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이야기한다. 마치 일기에 마음을 쏟아내며 시간까지 기록하는 청소년의 매력적인 순수함으로: 때는 10 시경이었다[99].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신 정확한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자신을 끌어당기셨는지, 언제 그리스도께 저항하지 않았는지, 언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는지까지 기억한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분은 항상 당신 곁에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아들을 지탱해주는 분이다. 그러나 그분 곁에서 주님의 시선은 한 친구를 발견한다: 요한. 그 고통의 시간 한 가운데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었을 것인가!

바로 그때,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분을 어머니와 함께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당신 사이에 존재했던 유일한 관계 안으로 요한을 받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19, 26-27).

몇 년 후 요한은 이렇게 썼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1 요한 4, 19). 이 놀라운 확언은 그의 개인적 체험에서 나온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를 채워주고 그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그 동일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다.

성 존 헨리 뉴만은 말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그의 애정이 집중되었고, 그 다음에 확산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우리 주님께서 떠나신 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우리 주님의 어머니를 돌보라는 엄숙하고 위로가 되는 임무를 받았다. 여기에 그의 형제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비밀스러운 원천이 있지 않은가? 구세주께서 당신의 애정으로 총애하시고, 또한 당신 어머니의 아들의 사명을 맡기신 그가 깊고, 관상적이고, 열렬하고, 고요하고, 무한한 사랑의 기념물이며 모범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한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으로 말이다”[100].

마음들을 깨우치기

온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사, 독신의 은사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발견에서 나오는 열망이다: “사랑은... 참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다!”[101]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랑을 감지하고, 그 무조건성으로, 배타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바치고자 한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애썼던 성 요한처럼. 사랑받던 제자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 요한 4, 11).

때때로 독신은 근본적으로 시간의 헌신과 연관된다. 마치 그 전적인 자기 내어줌이 효율성의 문제로 정당화되는 것처럼: 어떤 사도직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의무들을 갖지 않기 위해. 그러나 그 관점은 축소적이다.

독신은 복음화를 위한 가용성에 대한 실용적 고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나온다. 그것은 그분 마음의 생활양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살라는 초대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일하며, 더 나아가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들, 더 큰 가용성에 대한 언급은 충분하지 않다. 그 더 큰 시간의 가용성은 쉽게 혼인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참아주는 데 필요한 희생과 번거로움을 피하는 이기심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영적 빈곤이나 마음의 경직을 가져올 수 있다”[102].

따라서 독신은 상아탑의 고독이 아니라 동반하고 마음들을 깨우치라는 부르심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이상한 행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근본적으로 조금의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독신의 은사를 받는 이는 그들 모두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무한한 가치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독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실을 맺는다. 각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에게서 발견하실 줄 아셨던 그 동일한 선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죄인이나 나병환자나 경멸받는 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사랑받고 하느님께 선택받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피조물의 경이로움을 본다.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이는 비록 자연적 자녀는 없을지라도 깊고 참된 아버지다움의 능력을 갖게 된다.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다움이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03]. 자신이 다른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삶 자체와 가까운 말로써 오직 하느님만이 그들이 체험하는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세상은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을 자신의 삶이 세워지는 토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가 하느님께 드릴 증거가 필요하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 시대에 독신이 그토록 중요하다. 비록 우리 시대에 그것의 실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의문시되고 있을지라도”[104].

날마다 자라도록 부름받은 은사

독신의 은사는 현실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변화시키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히려 좋은 땅에서 점진적으로 자라야 하는 씨앗의 방식으로 그것을 주신다. 독신은 모든 성소와 마찬가지로 은사이자 과제이다. 그것은 길이다. 그래서 하늘 나라를 위해 독신이 되기로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정만으로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잡초를 뽑고, 벌레와 해충들을 살피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본성 안에서 작용하되, 그것을 부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개인사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흙과 은총의 그 무대에서 동정의 아름다운 은사가 조용히 자란다. 자라거나, 아니면 망가진다.

복음에서 집을 떠났다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하느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부름받은 이들도 언젠가 권태와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그 젊은이는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루카 15, 13 참조). 아버지의 집에서 내적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침내 눈을 뜨고 자신이 노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야 했다.

복음 본문에 따르면 그가 돌아온 동기가 그리 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배가 고팠던 것이다. 생물학적, 육체적 굶주림이었다. 아버지 집의 부드러운 빵이 그리웠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루카 15, 20). 아들은 거의 공식적인 재판을 상상했었다(루카 15, 18-19 참조). 그 대신 생명으로 가득 찬 포옹을 만난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자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토록 좋으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다른 때는 권태가 다소 미묘하지만 어쩌면 더욱 교활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복음의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자신을 아들보다는 종처럼 인식했다. 그는 “자기 집에 살았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마음이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105].

두 경우 모두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버지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사랑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영혼의 굶주림은 하느님께서 성체의 빵으로 채워주신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분을 만난다. 우리가 그분을 친구로 사랑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죽음처럼 강한”(아가 8, 6) 사랑 안에서 마음을 불타게 유지할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고, 그분의 승천에도 참석했다. “겉보기에는 이별이었던 그날이 실제로는 새로운 친밀함의 시작이었다”[106]. 스승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했다. 그들과 그분을 믿을 모든 사람을 더욱 가까이 사랑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독신 마음의 비밀이다: 지상의 사랑을 떠나 온 세상을 그분 사랑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다.

카를로스 비야르 신부

[89] 성 요한 바오로 2 세, 일반알현, 1979 년 10 월 10 일; 10 월 24 일; 10 월 31 일.

[90] 성 요한 바오로 2 세, 일반알현, 1979 년 10 월 10 일, 2 번.

[91] 베네딕토 16 세, 연설, 2006 년 12 월 22 일.

[92] 성 호세마리아, “대화”, 122 번.

[93] F. 오카리스, 사목서한, 2017 년 2 월 14 일, 8 번.

[94] 성 호세마리아, “길”, 884 번.

[95] 성 호세마리아, “주님과의 대화”, 비판-역사적 판본, 185 쪽.

[96] “십자가의 길”, 제 8 처, 5 번.

[97] 성 호세마리아는 때때로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렀다. “길”, 422 번;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93 번 참조.

[98]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2 번, 아가 8,6 참조.

[99] 성 호세마리아, 젊은이들과의 만남 기록, 1974 년 7 월 6 일, “아메리카에서의 교리교육”, 제 2 권, 113 쪽 (AGP, 도서관, P04).

[100] 성 J.H. 뉴만,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본당과 평이한 설교” 2, 설교 5.

[101] “길”, 171 번.

[102] 베네딕토 16 세, 연설, 2006 년 12 월 22 일.

[103] 프란치스코, 산타 마르타 미사 강론, 2013 년 6 월 26 일.

[104] 베네딕토 16 세, 연설, 2006 년 12 월 22 일.

[105] F. 오카리스, 사목서한, 2018 년 1 월 9 일, 9 번.

[106] J. 라칭거, “새로운 친밀함의 시작”, “우리 시대의 하느님의 광휘”, 헤르더, 바르셀로나 2008, 185 쪽.

(VII). 사랑에 응답하기. 혼인 성소

성 호세마리아가 혼인 성소를 말하기 시작한것은 거의 한 세기 전의 일이었는데, 이 두 개념의 결합은 당혹감과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날개 없는 새를 또는 네모난 바퀴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당신에게 '혼인 성소'가 있다고 말하니까 웃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성소가 있다: 그렇다, 성소 말이다."[107]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또는 오늘날에도, '성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평범한 삶을 떠난다는 의미였다. 어떤 식으로든 일상을 떠나는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이란 가족과 자녀, 가정, 직장, 쇼핑, 청구서 처리, 세탁기 돌리기,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경험, 웃음, 형제들 간의 다툼, 응급실에서 오후 보내기, 냉장고에 남은 음식 보관하기 등의 것이었다.

삶 자체와같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수한 것들은, 혼인 성소라는 불가능한 것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능한 최고의 모습을 찾는다. "혼인의 성소적 의미"는[108] 정확히 하나님이 가정 생활의 평범함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시편이 말한다(시편 22, 4). 거룩하신 하느님은 가정의 지극히 평범한 삶 한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임시 거처인 우리 삶의 모든 "제작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부름받은 삶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루도 빠짐없이 크든 작든 비밀을 하나씩 잡아서 너의 삶이 매일의 발견이 되게 하라.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딱딱한 빵 부스러기마다, 너는 너의 영혼의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바쳐라.”[109]

좋은 여행 되시기를

한 젊은이는 혼인 성소에 대한 말을 듣고 웃었지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도발”은 한 조언과 함께했다: “성 라파엘에게 의탁하라. 그가 토비야를 인도했듯이 너를 순결하게 길 끝까지 인도하시도록.”[110] 성 호세마리아는 성경에서 이 대천사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야기를 암시했는데, 그는 이 대천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애정이 너무나 깊어서 일찍부터 젊은이들의 사도직을 그에게 맡겼을 정도였다.[111]

“토비아서는 매혹적인 책이다”[112]라고 그는 한번 말했다. 책의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두 가정의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세 번째 가정의 탄생을 목격하게 한다. 그리고 여행 자체도 가정적인 분위기인데, 수세기 동안 예술가들의 눈에 띈 한 세부사항이 있다: 이 책은 또한 성경에서 가정 건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기도 한데, 그 개는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토비야와 성 라파엘을 동반한다. (토비 6, 1; 11, 4 참조).

토비야가 떠날 때, 그의 아버지는 이런 말로 그를 축복한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돌려보내 주시기를. 그분의 천사가 너희와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기를”(토비 5, 17). 성 호세마리아는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인용했다: “주님이 너의

길에 함께하시고, 그분의 천사가 너와 함께하시기를.”[113] 여행 -진정한 여행, 가장 결정적인 여행- 은 삶의 길이며, 혼인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길이다. 세상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느님의 꿈에 응답하면서 말이다[14].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깨우쳐주고 또한 많은 여행의 시간을 돌아본 후에 다시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 성소의 아름다움”을[115]: 이류가 아닌 일류의 성덕에 대한 부름을.

진정으로 삶이 시작될 때.

개인성소는 단순하지만 가득 찬 결과의 발견과 함께 깨어난다: 우리 삶의 의미, 진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것에 있다는 확신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바로 그것으로, 사랑을 주는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다.

단순히 여가 시간에, 양심을 진정시키려는 듯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리의 인생 계획으로, 다른 모든 계획들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사라와의 결혼 전후에, 젊은 토비야는 그 방향으로 여러 조언을 받는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것에 대한 부름이다. 미래를 대비해 돈을 마련하라고 여행 보내는(토비 4,2 참조) 그의 아버지 토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전해준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너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가 사는 동안 그를 버리지 말아라.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결코 슬프게 하지 말아라 (...). 아들이 음행을

삼가라 (...).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이에게 관대하게 주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 아까워하지 말아라 (...). 항상 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너의 행실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청하라. 그러면 네 사업과 계획에서 성공할 것이다”(토비 4, 3-19).

몇 주 후, 갓 결혼한 토비야가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 그의 장모 에드나는 이렇게 작별을 고한다: “주님 앞에서 내 딸을 네게 맡긴다. 결코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아들아. 이제부터 나는 네 어머니이고 사라는 네 아내다”(토비 10, 13).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라 (...). 결코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하느님은 부부들을 서로 보호하고, 돌보고, 헌신하도록 부르신다: 그것이 부부의 개인적 실현의 비밀이고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자아실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용어의 모든 깊이에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사셨다.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단순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무엇보다도 육화하신 생명을 돌보면서 사셨다. 하느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분의 기쁨을, 그분 삶의 열망을 발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의식의 핵심이다.

“우리의 도시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다- 사랑과 미소의 부족으로 사막화되었습니다. 많은 오락, 시간 낭비, 웃음을 짓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말입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 가정의 미소는 우리 도시의 사막화를 피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가정 사랑의 승리입니다. 어떤 경제적, 정치적인 것도 가정에 이러한 기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벨 계획은 생명 없는 고층 빌딩들을 세웁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반대로 사막을 꽃피게 합니다.”[116]

산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발견은 청소년기에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아주 늦게까지 발견하지 못한다. 이러한 발견은 유년기에서 인간적 성숙으로의 진정한 이동을 뜻한다. 그때 사람의 인격이 진정으로 형성 되고, 오직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더 많이, 항상 더 많이 갈망하는 것; 식욕 때문이 아니라 환상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다.

환상은 삶의 신호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삶이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는 것이다; 죽음의 맛을 느낄 수 없는 이는 이미 죽어있다. 오직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신을 잊을 수 있는,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한 마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단지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117]

하나의 ‘예’는 큰 범위를 갖는다

혼인 성소는 “자신의 만족을 향한 충동이나 이기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려는 단순한 수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것은 빛으로부터

나타난다[118]. 의심할 여지없이, 인격은 오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나타난다. 혼인 생활은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다; 그러나 문제, 요구, 실망이 따르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랑이 소원해질 때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딱딱한 빵 부스러기들을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편으로, 삶에서 하나의 특별한 사건에 심사숙고하는 곧, 가족의 사회적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지막 세부사항까지 심사숙고한 어떤 결혼식 축하의 흠 없는 완벽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불완전함 앞에서 쉽게 스며드는 환멸과 소홀함이 있다: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의 결점들이 발견될 때, 서로가 소통하고,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아낌없이 애정을 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혼인의 성소적 의미”가 흐려질 수 있는데, 그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를 내어 주도록...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되도록... 성소로 부름받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하느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중간에 머물러 “참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상호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새로움이... 새로움, 진정한 삶이 모퉁이 뒤편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 모퉁이가 다소 빛나고 있더라도, 어떤 모퉁이든 결국 그렇듯이, 단순히 약간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날, 그들은 서로의 사랑에 관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답은 오직 삶과 함께 온다: 대답은 육화되고 상호적인 “예”의 “영원히”는 천천히 만들어져야 한다. “사람은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자신의 전 생애로 대답한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말과 어떤 논거들로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 사람들은 모든 것의 끝에, 모든 질문들에 자신의 삶을 토대로 대답한다[119]. 너는 누구인가? 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전 생애로 대답한다.”

전 생애라는 것은 거둬들여 정복되면서 점점 더 깊게 진정성을 찾아간다: 시작의 피할 수 없는 순진함을 명석하지만 냉소적이지 않은 순수함으로; 알지만 사랑하는 “예, 자기야”로 변화시켜 간다.

진정으로 사랑을 위한 이러한 포기할 수 없는 “예”의 깊이는 교회가 연인 관계와 부부의 생명의 개방성에 관한 가르침을 시대에 역행하며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녀를 시대에 뒤떨어지고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게 할지라도, 하느님이 그녀를 개인적 사랑을, 특히 그것의 “원초”에서 [120] 보호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로서 고집한다.

교회는 이것으로 교과서 같은 추상적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가족의 구체적인 진리를 보호한다; 사람들의 관계를 진정한 치명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처음에는 로맨스와 승리의 옷을 입고 교묘히 스며드는 독이지만 아마도 몇 년 후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감옥으로 정체를 드러내는 이기심, 특히 그것이 두 사람 모두를 사로잡았다면 말이다.

“내 몸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누구든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즐기겠다”고 별다른 말 없이 하는 이에게는 겉보기에 관대함과 삶의 기쁨이 있다. 이것은 창세기의 메아리가 들리는 삶을 보는 방식이다: 젊음은 맛있는 과일이다...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느님이 왜 내 입에서 그 달콤함을 빼앗으시려 하겠는가? (창세 3, 2.6 참조).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골판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도 같은 매력을 느끼지만 신기루 같은 무엇인가를 직감한다; 그들은 더 깊이 보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노력으로 또는 어쩌면 잃었을지 모르는 순결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소모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준비한다.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는 이 삶의 욕구를 누구와 나눌 것인가? 정말로 이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함께 있으면 좋을 뿐인가?”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인격도, 자유도 줄 것임을 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영원히”라는 예 안에만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안다; 그들도 아무도 “조건 없는” 예보다 못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결정이 없다면 그들은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비록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들을 속으로 비게 만들 선물일 것이다.

같은 근본 논리가 독신 성소에도 적용된다. 독신자도 날마다 자신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혼인과 독신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둘 다 오직 하느님과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오직 당신의 모상에서 이해되는 무상성의 논리를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선물임을 알고 다른 이들을 보호해야 할 선물을 본다: 부모, 자녀, 조부모, 모든 이에게서 본다.

예수님이 사랑의 깊이를 계시하실 때, 당황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은 이들만이 할 수 있다"(마태 19, 11).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부모들은 때로 주위에서 몰이해를 느낄지라도, 근본적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존경한다는 것을, 때로는 그 이유를 잘 모를지라도, 알아야 한다.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진실한 사랑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로마 8, 26) 모든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느님 사랑의 기쁨과 자유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당하기 싫은 마음은 평생을 사랑 없이 보내리라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치유하신다", 즉 "하느님이 돌보신다"는 뜻이다. 토빗, 안나, 토비야, 사라의 공통 역사에서 대천사의 개입은 평상시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보호,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그분의 중요성(토비 12, 11-15 참조).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 나라로"(루카 15, 13) 떠난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적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들도 인식할 수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세상, 그리하여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때로는 파산하는 적대적 환경이

되는 세상. 그러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하느님은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으신다: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많을지라도, 항상 그런 현실들, 때로는 비극적인 현실들에 거하시느 방법을 찾으시며, 각 사람과의 만남으로 돌아가신다.

토비아서도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가까이 계심과 배려가 내외적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토빗은 고결한 사람이고, 심지어 영웅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실명하는 것을 허락하신다(토비 2, 10 참조). 그의 아내가 가족을 위한 수입을 벌어야 하고, 한번은 새끼 염소를 선물로 받는 일도 일어난다.

토빗은 아마도 자신의 장애로 인해 다소 신경질적인 기분에서,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흠쳤다고 믿고 의도치 않게 가정의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1 인칭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고집했다. 그러자 그녀가 나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자선과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토비 2, 14). 이 답변의 가혹함 앞에서, 토빗은 “영혼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느님께 자신을 데려가시라고 청한다(토비 3, 1-6 참조).

그러나 토빗은 항상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예를 들어, 토비아가 이미 행복하게 결혼하고 아버지가 회수하라고 맡긴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있을 때, 처음부터 그 여행에 반대했던 그의 어머니 안나는 최악을 두려워한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 아, 아들이, 내 눈의 빛이여! 왜 너를 보내 주었을까?” 역시 걱정하고 있는 토빗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조용히 해, 여보, 걱정하지 마. 분명히 괜찮을 거야. 지연되었을 거야. 그의 동반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 친척이야. 걱정하지 말아 여보, 곧 돌아올 거야.”

그의 설명은 효과가 없다. “그만둬!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마. 내 아들은 죽었어”라고 안나가 대답한다. 그러나 모성적인 모순으로 그녀는 비밀스럽게 그의 귀환을 계속 기다린다: “날마다 그녀는 아들이 떠난 길을 바라보았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해가 질 때,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지 못하고 밤을 보내며 한탄하고 울었다”(토비 10, 1-7).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의 일상적 문제들이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은 위안이 된다. 오해, 소통 부족, 자녀들에 대한 근심...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사랑과 만족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는 혼인과 인간적 사랑에 대해 빈약한 개념을 가질 것이다.”[121]

초기의 연애 감정 -가정을 이루는 계획으로 환상을 품게 하는 그 힘- 은 상대방의 거의 모든 결점들을 사각지대에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몇 주간의 지속적인 동거를 하다 보면, 누구도 결혼생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다. 혼인 생활은 팀으로서의 회심의 길이다. 남편과 아내가 매일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비록 그들의 한계가 지속되고 심지어 결정화될지라도.

한 오래된 노래가 말한다: “고통을 당하기 싫은 마음은 평생을 사랑 없이 보내리.”[122]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뒤틀릴 것이고, 아마도 부러질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기를 확신하고 싶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변덕과 작은 사치들로 조심스럽게 둘러싸야 하고; 모든 헌신을 피해야 하며; 우리 이기심의 상자나 관 속에 자물쇠로 잘 보관해야 한다.”[123]

토비아와 사라에게처럼 악령의 작용으로 첫 결혼식 밤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일은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다(토비 6, 14-15; 7, 11 참조). 그러나 이기심이라는 악마 -치명적인 질병-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마찰들”을 “산으로 만드는” 유혹으로 모든 가정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124]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비록 힘든 일들일지라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각자가 점점 담 뒤로 방어선 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능케 하는 감정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 호세마리아는 “다투는 것도, 너무 빈번하지만 앓다면, 부부의 사랑의 표현이고 필요하다”라고 말한다.[125]

물은 흘러야 한다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시간을 찾고, (...) 반항할 때 일부분 그들의 진리 - 또는 완전한 진리- 를 인정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126] 그러므로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기를: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그 전에 연애 시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대화하기를: “당신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 105). 성경

이야기가 토비야와 사라의 불화들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토빗과 안나처럼, 그리고 모든 가정들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 까지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을 것이라고도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혼인이 하느님과 친밀함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그들이 결혼식 밤에 기도한다-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노년에 이르게 하소서”(토비 8, 7).

“가정의 교황”[127]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아가서의 부부 사랑을 토비야와 사라의 사랑과 비교했다. 아가서의 부부는, 그가 말하기를, “열정적인 말들로 서로의 인간적 사랑을 선언한다. 토비아서의 새로운 부부는 하느님께 사랑에 응답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청한다.”[128] 혼인 사랑의 이 두 초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둘 중 어느 것이 그것을 더 잘 반영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둘 다이다. 두 마음이 만나는 날, 그들의 성소는 아가서 부부의 것처럼 싱싱하고 젊은 얼굴을 갖는다. 그러나 그 얼굴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사랑에 응답하라는 자신들의 부름을 다시 받아들일 때마다 그 젊음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때, 그렇다, 그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129]

카를로스 악셀라 신부

[107] 성 호세마리아, “길”, 27 번.

[108]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30 번. 22-30 번 참조.

[109] 후안 라몬 히메네스, “영원들”, 마드리드 1918, 126 쪽.

[110] “길”, 27 번; 360 번 참조.

[111] 성 호세마리아, 내적 기록들, 1697 번, 1932 년 10 월 10 일, A.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 데이 설립자”, 제 1 권, 리알프, 마드리드 1997, 477 쪽에서 인용.

[112] 성 호세마리아, 묵상 기록들, 1947 년 10 월 12 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41 쪽.

[113] 같은 곳.

[114] 성 요한 바오로 2 세 그러므로 혼인을 “원초적 성사”라고 불렀다.

[115] F. 오카리스, 사목 서한, 2017 년 2 월 14 일.

[116] 프란치스코, 일반 알현, 2015 년 9 월 2 일.

[117] J. 마라갈, “삶의 찬양”, “쓰여진 삶”, 아길라르, 마드리드 1959, 105 쪽.

[118]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43 번.

[119] S. 마라이, “마지막 만남”, 살라만드라, 바르셀로나 2007, 107 쪽.

[120] F. 오카리스, 사목 서한, 2017 년 6 월 4 일.

[121]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24 번.

[122] “높은 나무들에게”, 성 호세마리아가 “길” 145 번에서 언급하는 민요.

[123] C.S. 루이스, “네 가지 사랑”, 리알프, 마드리드 1991, 135 쪽.

[124]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23 번.

[125] 같은 곳, 26 번.

[126] 같은 곳, 27 번.

[127] 프란치스코, 요한 바오로 2 세 시성식 강론, 2014 년 4 월 27 일.

[128] 성 요한 바오로 2 세, 일반 알현, 1984 년 6 월 27 일.

[129] 같은 곳, 그리고 아가 8,6 참조.

(VIII).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것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무릎을 꿇은 뒤,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저의 두 아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각자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태 20: 21)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녀의 당찬 요구에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두 아들에게 그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이며, 영원하고 범우주적인 사명을 얻을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 교회는 오늘날 새로운 사도의 충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마의 교황님을 통해 우리의 주님은 그녀를 '재 탄생한 복음화'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새 천 년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130] 그리고 가족은 이 모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주역은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과 조부모님들입니다. 그들은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가족은 삶에 주님의 사랑이 현존하게끔 실현시켜 주는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131]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과 다른 이들이 모양새를 갖춰가는 모습을 봅니다. [132] 집이란 주님이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토양을 갖춘 알맞은 환경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백배,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순 배나 서른 배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마태 13:23).

성인들의 부모님.

호세마리아 성인은 주님께서 오푸스데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광대하고 신성한 전경을 보여주셨을 때 아직 어린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소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적 지도자에게 더 많은 기도와 참회를 하고자 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 하기 위해 그는 선생님에게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성인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성인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132]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세마리아 성인의 말씀을 가정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떤 식으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주위의 사람에게 나누고 빛이 될 때 그 가치를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성을 열망한다면, 우리 개개인은 '성인이자, 아버지, 스승님, 그리고 성인들의 안내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호세마리아 성인은 '결혼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할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결혼이 진정으로 성화되는 길이자 부부의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있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재치 있는 발언으로 그는 '나는 내 두 손으로 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왜 두 손으로 축복을 내리냐고 묻는다면, 나는 손이 네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이들을 반기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며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위태롭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부성과 모성은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가능케 합니다. 그 어떤 엄마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기꺼이 대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성서에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자식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영예로워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마카빈의 일곱 형제를 둔 어머니, 예수님께 딸을 청하던 가나안의 여인, 나인의 과부, 엘리사벳과 즈카리아, 그리고 가장 특별한 우리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계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는 가족이 새로운 세대에 성스러운 남성과 여성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기쁨과 만족도 따르지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는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과, 사춘기 시절의 반항, 힘든 취직의 기회, 알맞은 배우자를 찾기 위한 고민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마음이 아플 때는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지려 할 때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지켜볼 때입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려 진심으로 노력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부모는 대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상처 받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교육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멀리하고 현실감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길을 따를 것인지 직접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도 부모에게 받은 것들에 대해 재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견고한 사랑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더 멀어지게끔 하는 과도한 중압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34]

‘대부분의 경우,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고, 상냥하고 넓은 아량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것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루카 15, 11-32).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들의 자유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만드는 결정들이 비록 선한 마음에서 나왔을지라도 부모의 의견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릴 땐 거의 모든 일에 자신을 필요로 하던 자녀가 커가면서 그들의 삶에 단순한 구경꾼이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아이들에게 가장 부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릴 적 자신을 먹여주고 걸음마를 떼게 해준 부모가 자식이 새로운 여정을 펼쳐나가며 자유 의지를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이제 부모는 선생님이자 안내자입니다.

성인들의 스승님.

부모는 알게 모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입니다. 거의 삼투적으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평생 지니고 가게 될 수많은 것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술 행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또 사랑 받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우선 부모는 자식들이 논할 가치가 없는 편견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란 '본인의 변덕을 따르는 것, 그리고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것[135]' 이라는 사고 방식 등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자식들이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점점 좋아하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들이 알려주는 것을 따르는 어려움뿐 만 아니라 선을 따르는 기쁨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136]

이러한 성장의 길목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들을 더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배워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우며 하는 이런 저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서 배운 것들의 진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당신 어머니의 조언을 빗대어 호세 마리아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137]

아이들은 결국, 그게 언제일지라도,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었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위대한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발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좋은 삶을 위해서는 집에 대한 좋은 기억들, 특히 유년기 때의 추억들 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138]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에 대해 왈가왈부해도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신성한 추억만큼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평생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간다면 눈 감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고, 가슴 속에 좋은 추억만 남는다면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사명이 씨를 뿌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면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비록 모두 좋은 결과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성인들의 안내자

안내자란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거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 분야를 잘 알아서, 그 길을 처음 떠나는 이들을 잘 동반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안내자와 선생님들은 마음과 정신 모두가 잘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제베대오의 부인 살로메는 아들과 예수님의 길을 동반하여 따랐으며 십자가 밭 아래에도 함께했습니다. 제베대오의 두 아들 중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밭 아래 살로메와 함께 했지만, 주님을 위해 가장 처음 순교한 것은 첫째인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뒤 주일에 무덤에 함께 있었던 것도 마리아 막달레나와 살로메입니다. 곧 요한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안내자들은 가끔 복잡하고 힘겨운 여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여정 안에 그 힘든 길 중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소명을 통찰력 있게 따르도록 함께 해주는 것은 부모 자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이 도전적인 단계를 두려움으로 맞서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나는 요한 1 서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 요한 4, 18).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39]

당연하게도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행복 하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들은 자녀의 재능과는 상관없는 전문직을 꿈꾸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하되, 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은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특히 깊은 신앙과 함께 자라왔다면, '아이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생각과 계획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 보게끔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교육은 책임감 있는 자유를 장려합니다.' 라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0]

부모는 보통 자기 자녀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것들만 주고 싶어하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삶의 결정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번영을 위한 미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싶어한다[141]. 그러므로 자녀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부모는 신중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역을 직면하게 된다. 호세마리아 성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아들에게 '조금만 더 생각하거라' 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내 '내가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 라고 더하셨다[142].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영적 결심에 대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을 하려 노력하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주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좋던, 싫던 주님의 크신 계획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아이들은 본인의 소명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설지 잘 알지 못한다. 호세마리아 성인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시는 것을 보았을 때가 신부님이 되겠다고 말씀 드렸을 때라고 하셨다[143]. 부모가 원한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자녀가 택할 때에는 부모의 큰 관대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주님이 부모에게 덜 바라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런 희생 역시도 신성한 주님의 은총이다. 이러한 '충격' 역시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호세마리아 성인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자식이 오롯이 주님을 향한 소명을 갖는 것의 구 할은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144]. 주님은 자녀의 사랑이 충만하고 자율적인 선택을 받아들이는데 따르는 부모의 희생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 하신다.

주님께서 자녀를 부르신 것을 알고, 그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지 않고 관대히 받아드릴 때 이들을 위한 많은 천상의 넘치는 축복을 끌어오게 된다.

이것은 세기를 넘어서 반복되어 왔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곱을 부르시며 모든걸 내려놓고 따르라 하셨을 때 그들은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잡고 있었다. 제베대오는 계속 하던 일을 하였고, 어쩌면 조금 화가 났을지 모르나, 아들들을 보내주었다. 어쩌면 주님 당신이 그의 가족에 들어오려고 하셨음을 깨닫는 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엔 그의 두 아들이 '해안 없는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때

딸 혹은 아들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존재는 더욱 절실하다. 부모는 멀리서도 자식 안의 작은 슬픔도, 진정한 기쁨도 눈치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실하게 자라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쩌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이 부여 받은 능력을 알아채는 것이다. 주님의 현존 안에 다음과 같이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자녀들을 부를 때 이것은 부모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엄청난 영광이다. 위대하고 거룩한 자부심을 위한 동기이자, 편향의 증표이며, 주님의 특별한 애정이다. 부모를 통해 영적 소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삶이라는 선물의 연장이다.' [145] 호세마리아 성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의 조각들을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당신만을 위해.' [146]

주님의 눈에 부모의 기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놀라운 예는 성서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던가?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아마 성 아우구스티노를 변하게 한 성녀 모니카의 끈임 없는 신뢰와 기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예들이 존재한다. 모든 성소의 보이지 않는 곳에는 '누군가의 강력하고 깊은 기도가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공동 사회.. 주님의 부르심은 기도를 통해, 기도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인내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147] 성소의 길로 접어들고 나면 마지막까지 그 소명을 지켜내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깊이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부모는 자녀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새로운 길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의 성실함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부모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원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녀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고, 또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때로는 자식이 먼저 조언이나 도움,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을 것이다. 자식의 소명을 통해 자신들의 신성한 부름을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이야기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야곱과 요한의 헌신의 과실(열매)은 측정 불가능 하다. 하지만 교회의 이 큰 기둥들을 소명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다. 야고보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의 끝에서 끝으로 전파했으며 요한은 이러한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을 글로 선포하였다. 그들의 희생으로 믿음을 얻은 모든 이들은 갈릴레오의 해안에서 온 이들 부모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제대베오와 살로메의 이름은 사도들과 함께 세상 끝 날까지 기억될 것이다.

‘받아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쳐질 내 몸이다.’[148]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본인의 자녀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을 본 어머니와 아버지는 미사 중 봉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삶에서 이미 경험 중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삶과 양분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바쳤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 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이 새로운 ‘예(yes)’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하나되고 이는 예수님의 고난의 ‘예(yes)’ 안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겸손한 마리아의 ‘예(yes)’로부터 시작된다.

디에고 잘비데아 신부

[130] 성바오로 6 세, 교황권고, 복음을 전파하다(Evangelii nuntiandi, 1975.12.8 일) 82 항.

성요한바오로 2 세, 교황서한, 새로운 천년의 시작에(Novo millennio ineunte, 2001.1.6 일), 40 항.

베네딕토 16 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주교 대의원 회의” 강론 (2012.10.7 일)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일), 27 항.

[131]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서간 (2017.7.4 일)

[13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5-1666.

[133] 성 호세마리아, 개인 노트, 175 항.

[134]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일현 (2015.2.4 일)

[135] 페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 사목 서간 (2018.1.9 일)

[136] 전체 인간에게 다가가기, 감정의 역할 참고. (1) opusdei.org

[137]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기록물 (1958.2.17 일)

[138] 도스토옙스키, F.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에필로그.

[139] 성 호세마리아, 청년들과 모임 중 (1972.11 월)

[140]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권고, Amoris Laetitia 사랑의 기쁨” (2016.3.19 일)

성 호세마리아는 이런 걱정을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가족모임에서 말씀하였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미 어떤 아가씨와 결혼시킬 준비를 합니다. 아빠는 어떤 공부를 시키고 아니면 사업을 시킬지 생각하기 시작하지요. 각자 소설책 한 권을 씁니다. 근사하고 로맨틱한 소설이지요. 아이는 총명하고 착하게 큼니다. 부모님이 선한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말합니다: ‘부모님의 쓰신 소설책은 저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울화통이 터집니다”.(1972.11.4 일)

[141] 성 호세마리아는 스페인어 ‘De tejas para abajo (지붕 아래)’ 관용을 이용하는데 ‘집안 걱정들’ 뜻에 가깝다. 참조.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기념, 리알프, 마드리드 2000, p. 99.

- [142] 아나 사스트레, 걷는 시간, Rialp, 마드리드, 1989, 52 페이지.
- [143] 안드레스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데이 창립자, Vol. 나, 73 페이지.
- [144] 성 호세마리아, 대화, 104 항.
- [145]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18 항.
- [146] 성 호세마리아, 가족모임 중 (1960.10.22 일).
- [147] 교황 프란치스코, Regina Caeli, (2013.4.21 일)
- [148] 로마 미사예식서, 감사 기도

(IX).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여정.

사도들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바라본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청년은 “근심하여 가 버렸다”(마태 19, 22 참조). 예수님의 시선은 슬펐다기 보다는 아픈 듯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려울 것이다.” (마태 19, 23).

베드로는 어느 때처럼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하여 여쭙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마태 19, 27).

이 말씀을 되새기듯, 성 호세마리아는 오푸스데이의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친근하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제 저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의탁한 이들을 버리실 수는 없습니다!” [149].

나에게는 어떤 길이?

소명의 시작은 언제나 불확실함을 동반한다. 하느님께서 마음속에 불안을 허락하시고, 구체적인 길이 어렴풋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는다.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 질문 뒤에 있는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삶이 값지고 의미 있게 되기를 바라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비롭고도 단순하다. 바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느님과,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다. 사실 두려움의 대상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무한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불안해진다. ‘과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와 성 호세마리아의 “저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오늘 날의 그리스도인이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면 제 삶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쭙다면, 그리스도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다정하고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내기’로 삼으시며, 결코 지지 않으신다.

삶은 모험이고, 위험이며, 한계와 도전이자 노력이다. 자신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더 큰 무언가에 인생을 바칠 때, 우리는 참된 아름다움과 충만한 행복을 발견한다. 예수님의 시선은 희망으로 빛나며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마태 19, 29).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크게 주신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눈부신 계시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신다. “어떤 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존재의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된다면, 성령께 ‘보게 하소서.’라고 빛을 청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함께 분별에 참여하는 이들(영적 지도자 등)이 어떤 객관적 장애도 보지 못하고, 하느님의 섭리가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끌었다면, ‘보게 하소서.’라고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하게 하소서.’라고 힘을 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은총으로 높아진 자유 안에서 영원한 소명이 구체적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150].

교회와 함께하는 여정.

소명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고 자라난다.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고, 교회는 우리와 기쁘게 함께한다.

교회는 끌어당긴다. 하느님께서서는 역사 안에서 어떤 이들을 통해 깊은 메세지를 남기신다. 그들의 삶과 이상, 가르침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이기심을 벗어나 더 충만한 사랑의 삶으로 부르신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다.

교회는 부른다. “하느님은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허락을 구하지 않으신다. 그냥 들어오시고… 그것으로 끝이다!”[151].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시며(루카 14, 15-24), 모든 사람이 초대받았음을 가르치셨다. 사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의 초대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다.

교회는 맞아들이고 함께한다. 모든 소명은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완덕의 길로 이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소명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응답한 소명이다. 혼인과 독신, 사제직과 수도생활은 모두 열린 길이다. 선택은 자유에 달려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부르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마태 16, 24).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마태 19, 21).

그렇다면 왜 어떤 이는 특별히 이 길을, 또 다른 이는 저 길을 택하는가? 자유는 더 크고, 더 거룩한 사랑을 향하기 때문이다. 성 이냐시오 안티오키아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교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위대함의 문제이다.” [152].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단순함만으로도 영혼을 끌어당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마르 10, 21 참조)는 말씀처럼,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깊고 신비로운 내면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했듯이, “비슷한 자만이 비슷한 자를 안다.” [153].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은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가까이에 있는 그들은 성덕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한다. “어쩌면 나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이다. “와서 보시오.” (요한 1, 46).

함께하는 식별.

소명을 식별하는 데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도움, 또 교회 제도의 식별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명은 각자가 제 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삶을 계획할 때, 신뢰할 만한 이들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다. 그들은 우리를 잘 알고, 양심 안에서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 “용기를 내라. 너는 이 사명을 위한 조건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네 소명일 수 있다. 정말 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혹은, “어쩌면 이 길은 네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명은 언제나 모두에게 이롭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을 사랑의 섭리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덕의 길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길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또한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을 일으켜 교회 안의 이 길들이 생기 있게 한다.

신앙의 도약: 하느님께 대한 신뢰.

당신을 따르는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요한 6, 5). 사도들은 사람들의 배고픔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에 있던 한 아이가 가진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빵들을 손에 들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요한 6, 12) 하시어 열두 광주리를 가득 채울 만큼 남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문을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분을 갈망하는 군중 앞에서 그분과 함께 마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식하면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완전히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요하지 않으시므로, 신앙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왜 한 번에... 진정으로... 지금 당장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가?” [154].’

물론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식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식별이란 자기중심적 자기분석이나 이기적 성찰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하느님의 신비로 향하는 것이며, 이는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155]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소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고, 안전지대와 개인적 안전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려면 낙하산이 작동하고 펼쳐져서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먼저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소는 자신의 보장이 아닌 하느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

말하면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별을 보았지만, 페르시아에서 나온 후에는 의로움의 태양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단을 내려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별을 계속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156]’라고 하였습니다.

별을 보려면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언제까지 결정을 미루려는가?” [157]’.

오직 길을 선택해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선택한 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 5):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적인 깨달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청춘을 보내는 사람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존재하는 특별한 한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셀카를 너무 많이 찍고, 너무 많은 사진에서 자신을 보다 보니 아마도 자신을 이미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각자에 대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이라는 신비를 가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을 찾기 원한다는 것은 이 신비를

발견하고 신뢰를 가지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논리와 이유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야기는 조금씩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신뢰의 길은 가장 큰 꿈들, 하느님의 꿈들을 실현하게 됩니다. 착한 자녀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로마 8, 14 참조), 우리의 삶은 날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길이며;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소녀 마리아의 길이고, 하느님께서 아버지로 받아들이신 목수 요셉의 길입니다; 처음의 동요와 실수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이 된 사도들의 길이며...; 우리보다 앞서 가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그들의 삶이 시작될 때 누가 그 신비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마지막에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가능한 것은 각자 자신의 거짓 안전함에서 벗어나 하느님 아버지의 든든한 팔에 뛰어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158]’.

그래서 식별이 진전되고, 구체적인 성소가 분명한 윤곽을 갖게 될 때,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첫 도약, 즉 ‘예’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식별은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세기에 걸친 지혜로 각각의 성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단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느님께 의탁하도록 도와 주며, 더욱 헌신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며, 그래서 그분과 교회를 신뢰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탈렌트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마태 25, 14-30 참조) 우리가 무엇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고려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하며; 거래하지 않고 나누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진실한 결정의 열쇠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려는 자세와, 이러한 봉헌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확신입니다. 이렇게하여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았다는 깊은 확신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게됩니다.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는 순간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루카 1, 34 이하 참조). 천사는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전달자이자 중재자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지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묻습니다. 천사가 확신시켜 주는 것 앞에서: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전해준 것이 너를 넘어서지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37 절).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조차도 묻는다면, 각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사랑의 내적 감동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제 삶을 바칠 수 있을까요? 제 행복을 위한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빛나는 자유와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서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 위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파블로 마르티 신부

[149] A . 바스케스 데 프라다,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제 3 권, Rialp, 마드리드 2003, p. 33

[150] F. Ocáriz, “교회 안에서 오푸스데이성소로서의 오푸스데이 성소”, 교회 안의 오푸스데이, Rialp, 마드리드 1993, p. 153.

[151]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n. 902.

[152] 성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n. 3 (PG 5, c. 690).

[153] 아리스토텔레스, 영혼론 I, 2.

[154] 성 호세마리아, 길, n. 902.

[155]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19-III-2018), n. 175.

[156]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해, VII. 5 (PG 57, c. 78).

[157] 길, n. 797.

[158]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제 7 처 참조.

(X). 우리는 사도들이다!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시작하신 사도직 모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 중 적어도 네 명이 그 도에서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낚은 배 곁에, 찢어진 그물 곁에 있었는데, 그것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159]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계획을 그려내는 말씀으로 그 첫 번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 16-17).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낚을 것입니다. 다른 바다를 알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일을 통해 배운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순풍과 풍어가 있는 날들이 올 것이지만, 볼품없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잡히지 않는 날들도 있을 것이며, 빈손으로 해안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적게 잡히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느 경우든 어획량이나 사람들이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 아름다운 임무, 특별한 것 -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비전입니다”라고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각자 안에서 “실천을 통해 직업의 몸체를 갖추게 되는 활동에 자신의 가장 고귀한 에너지를 바치고자”하는 열망을 점화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명이 우리로 하여금 -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 죽음의 순간까지도 희망에 가득 차서 열정과 기쁨으로 유지할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이끍니다. 그것은 일에 사명감을 전달하는 현상입니다”[160].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임무는 우리의 존재 방식, 행동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해 갑니다.

오카리스 몬시뇰께서는 표현력 있는 말씀으로 이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입니다!”[161] 사도적 사명은 우리 개인 생활의 어떤 시간이나 특정 측면들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360 도의 범위를 가집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처음부터 오푸스데이의 사람들에게 이를 상기시키셨습니다: “내 아들들아,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결합하여 좋은 일을 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적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적 지시를 수행하는 사도들이다”.[162]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 바오로가 썼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사랑의 충동은 초대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유일한 보상은 “복음을 무상으로 전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주 그는 마음을 엽니다: 그는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가치하고 공로가 없지만, 그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도적이지 않은 상황이 없으며,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1 코린 9, 16-23 참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분이고, 이렇게 여겨 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종 바오로, 소명으로 사도가 된 자,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로마 1, 1).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직은 단순히 “맡겨진 일”이나 하루 몇 시간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한 몸 한 마음”이 된 마음에서 솟아나는 필요입니다[163]. 사도가 되는 것은 “명예로운 칭호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관심 있는 주체의 전 존재를 구체적으로 또한 극적으로 책임지게 합니다.”[164]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복음화하려는 노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의 부르심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으므로, 사도직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도록 그분께 청합니다(요한 4, 14 참조).

세상의 소금, 빛, 누룩

제자들에게 그들이 발전시킬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번은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13-14). 다른 때에는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온 반죽을 발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요(마태 5,33 참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하는 소금, 인도하는 빛,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

다른 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오푸스데이의 신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자연스럽고 신중하게 사도직을 발전시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은 단순히 주님의 이 비유들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너에게는 구체적인 길에 대한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다: 세상의 모든 교차로에 들어가되, 너는 하느님 안에 잠겨 있어라. 그리고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비추기 위해, 맛을 주기 위해, 발효시키기 위해, 증가시키기 위해.”[165] 실제로 소금은 음식과 잘 섞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는 맛없을 수 있는 음식에 은혜를 줍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 빵에 부피를 줍니다. 빛은 차례로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높은 곳에 놓이며, 항상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마태 5,15-16); 그러나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자신이 비추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하며, 희망과 계획을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166]-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 개방성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마음에 하느님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평온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으로[167]: 때로는 그들을 위해 간단한 기도를 드리며, 다른 때에는 한 마디나 친절한 몸짓으로.

삶의 사도적 효과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가 그림자 속에 남아 있고, 이 생에서는 그것들을 알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새로워지는 열매, 주님과 아주 결합되어 살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사도로서 삶을 걸어가기: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소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런 내적 삶으로, 주님과의 그런 일치로 우리가 비추고, 부패와 그림자를 피하게 하자." [168]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수고를 결실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외적 어려움들에 대해 생각하며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호수가 너무 크다고, 군중이 우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길이 힘들다고, 이 폭풍에 맞서 노를 저을 수 없다고...

능동적 자발성으로

열두 사도들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때로는 아주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됩니다. 교회에서 시성된 성인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만 꾸준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동시에 모두 사도이고, 신자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자를 생각하실 때, 그분께서 선물하고 싶어하시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를 자신의 개인적인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선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 그것은 분명히 당신을 가장 깊은 곳에서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당신을 더 영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 특별하거나 드문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그릇에, 당신의 전 생애의 그릇에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69]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은총이 개인적 노력과 함께 자신의 성격까지도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완전성의 이상을 의지적으로 강요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삶에 미치시는 영향과 열정입니다.

단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에게 자신의 삶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답변은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살면서 이렇게 야심차게 제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훨씬 더 좁은 지평을, 더 짧은 비행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야심차게 실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와 복자 알바로] 위대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교적으로 위대한 두 분과 함께 살았던 덕분에 세계화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170]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삶의 키를 잡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깊이 자유로운 응답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빛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창조성을 그분의 봉사에 바치는 데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오푸스데이 정신의 가장 명백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유와 이해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1]

동시에, 이 정신적 자유는 “자신의 변덕에 따라 행동하고 어떤 규범에든 저항하는”[172]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이 해방되어야 할 강요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움직였던 바로 그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내려왔다”(요한 6, 38). 만약 사도직을 하나의 활동으로 더 생각한다면, 사도적 계획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의해 파견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여러 도구들을 통해 전달하시는 도움과 추진력을 즐깁니다. 정신적 자유로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형성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자유는 사도적 사명의 이러저러한 필요 앞에서 “능동적 자발성으로”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능동적 자발성으로, 즉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그것이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사도로서 해당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의 작은 상황들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매혹적인 역사를 그분과 함께 계속하기 위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밀어내십니다(루가 5, 4 참조).

만약 우리의 사명이 “사도직을 하는 것”이라면 불가피한 일이나 병 때문에 그것을 제쳐둘 수 있을 것이고, 사도적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화의 열정을 방에 남겨두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확실히 사명은 자주 노력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저항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자발성과 사도적 창조성이 자라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명과 동일시될수록 모든 것이 사도직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전초기지에 있다는 의식, 보초의 의식”을 얻게 되며, 이것은[173] “사랑의 경계에, 긴장 상태에, 잠들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머물도록 이끕니다[174]. 사랑의 경계이며, 따라서 불안이나 신경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우리를 희망에 젖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주변에 행복을 전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며 그 일이 그분의 것임을 확신합니다. 만약 언젠가 영혼에 어떤 평화의 부족, 과도한 긴장이 스며든다면, 그분께 가까이 가서 말씀드릴 순간입니다: “당신을 위해 합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께서 하신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따뜻함을 주는 영적 빛

혼인 잔치 초대받은 이들의 비유에서, 집주인이 초대받은 이들 중 몇몇이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종에게 “가난한 이들과 불구자들과 눈먼 이들과 절름발이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루카 14, 21). 연회장은 상당히 붐비게 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종에게 말합니다: “길거리와 울타리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워라”(23 절).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그의 열망의 강도가 바로 거기까지 이릅니다.

이 명령이 단호한 것은 구원에의 부르심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강요가 아니라, 빛의 풍요로움, 교리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고의 영적 자극, 그것은 교리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칠 줄 아는 희생의 집합;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가에 떠오르는 미소;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모순이 없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평온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을 다른 이들이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우아함과 인간적 매력을 더하면,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는’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175] 따라서 그것은 누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새로운 기도와 우정, 증명과 관대한 희생의 결합입니다... 나누는 기쁨, 자유롭게 초대하는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끌어서”[176] 행동하신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과 매력으로 영혼들에게 박차를 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은 넘쳐흐르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끌어당길 줄 압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모든 이를 끌어당깁니다”[177].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를 위해 아주 큰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랑만큼 끌어당기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의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된 우정은 실제로 “성 호세마리아께서 복음 이야기에서 발견하신 사도직을 하는 방법”입니다[178]. 필립보가 바르톨로메오를 끌어당겼고;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그리고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들도 좋은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정과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따뜻함을 주는 영적 빛.”[179]

친구를 갖는 것은 꾸준함, 개인적 접촉을 요구합니다; 모범과 진실한 충성; 서로 도우려는 의지, 서로를 떠받치는 의지; 경청과 공감: 타인의 필요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우정은 사도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도직 자체가 그 본질에서 우정입니다: 무상성, 다른 이들과 삶을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 물론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일에서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거의 모든 이가 떠났을 때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요한 6,66-69 참조)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올 것이었습니다(사도 2,37-41 참조).

한번은 한 젊은이가 성 호세마리아께 물었습니다: “신부님, 많은 이들이 따라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80] 답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 충실한 우정, 자유에 대한 존중.” 젊은이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부님?” “아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성 호세마리아께서 각 음절을 늘려 대답하셨습니다. “사울이 바오로로 되는

데는 일 초면 충분했다. 그 후 사흘의 기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다.”[181]

하느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도는 기도와 희생으로 친구들과 동반하며, 자신의 제안에 “아니오”라는 답을 받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기를 거부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참된 친구는 장점에 기대어 성장을 돕고,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결정들에 대해 많은 경우 질책을 피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고, 언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야 하는지 알며,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각 사람의 가장 좋은 점에 대한 신뢰와 헌신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하기를 원하십니다.

무겁게 굴지 않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던 것처럼 귀에 몇 마디를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살아 있게 유지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너와 나는 사람들을 볼 때 영혼들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한 영혼이 있다 -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 도와야 할 영혼; 이해해야 할 영혼; 함께 살아야 할 영혼; 구원해야 할 영혼.”[182]

호세 마누엘 안투냐 신부부

[159]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356 번.

[160]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32 년 1 월 9 일, 9 번, “오푸스데이의 설립자”, 제 1 권, 리알프, 마드리드 2010, 302-303 쪽.

[161]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7 년 2 월 14 일, 9 번.

[162] 성 호세마리아, “훈령” 1934 년 3 월 19 일, 27 번, “길” 비판-역사적 판, 942 번에 대한 주석에서 인용.

[163] “로마 미사 경본”, 감사기도 제 3 양식.

[164] 베네딕토 16 세, 알현, 2008 년 9 월 10 일.

[165] 성 호세마리아, 1955 년 4 월 묵상, “작품들” 1956, XI, 9 쪽 (AGP, 도서관, P03).

[166]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과 홀로”, 273 번 (AGP, 도서관, P10).

[167] J. 에체바리아, 강론, 2010 년 9 월 5 일, “로마나”, 51 호, 2010 년 7-12 월, 339 쪽 참조.

[168] “담금질”, 969 번.

[169]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2019 년 3 월 25 일), 287 번.

[170] P. 우르바노의 J. 에체바리아 인터뷰, “에포카”, 1994 년 4 월 20 일, A. 산체스 레온,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리알프, 마드리드 2019, 349-350 쪽에서 인용.

[171]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54 년 5 월 31 일, 22 번.

[172]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8 년 1 월 9 일, 5 번.

[173]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54 년 5 월 31 일, 16 번.

[174] 같은 곳.

[175] 성 호세마리아, “서신” 1942 년 10 월 24 일, 9 번; “하느님의 친구들”, 37 번 참조.

[176] 베네딕토 16 세, 강론, 2007 년 5 월 13 일; 프란치스코, 강론, 2018 년 5 월 3 일.

[177] 성 호세마리아, 이산가족 상봉, 1967 년 5 월 10 일.

[178] F. 오카리스, 목자 서신, 2017 년 2 월 14 일, 9 번.

[179] “담금질”, 565 번.

[180] 잘 작동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81] 성 호세마리아, 가정 모임 기록, 1967 년 4 월 24 일, “연대기” 1967, 506 쪽 (AGP, 도서관, P01).

[182] 성 호세마리아, 1963 년 2 월 25 일 묵상 기록, “연대기” 1964, IX, 69 쪽 (AGP, 도서관, P01).

(XI).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 13, 1). 성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서 파스카 만찬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례 없는 행위를 소개합니다. 모두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요한 13, 4-5).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터전이 될 연약한 사람들의 발을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호수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스승이 수많은 군중을 먹이실 능력에 대해 의심했으며,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파르나움 회당에서의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이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났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을 따라 이어지는 그분의 긴 여정을 동행하며,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악하며 바라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반발합니다. “주 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고집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요한 13, 5-8). 시몬의 대답이 지닌 급진성이 놀랍습니다. 이는 거부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틀렸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한 13, 8).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스승과의 첫 만남부터 시몬 베드로는 내적 성장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조금씩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난이 다가오면서, 그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두 장면이 이어어집니다 - 발 씻김과 성체성사의 제정 - 이를 통해 베드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요구되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순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에게 여전히 하나의 명제일 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깊이로 그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발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스승과 자신을 위해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든 겸손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에 대한 큰 열망과 덜 고귀한 의도들이 뒤섞입니다. 종종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들로 우리의 입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소명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석임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세월의 흐름, 변화하는 상황,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일상의 피로는 때때로 우리 길의 아름다움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명을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영적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개인적 신비를 축소시키는 여러 왜곡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감정주의: 하느님과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물에 반응하는 것,
- 의지주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당 부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맡기는 것임을 잊는 것,
- 완벽주의: 인간의 결함을 하느님의 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향,

이러한 왜곡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한계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왜곡해도, 놀라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는 무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요한 13, 8-9).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움직이는 것이 사랑임을 아시고, 그래서 같은 급진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의 특징인 걱정으로 반응합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이 말들은 매우 급하게 내뱉은 것이었고, 그는 그 말들의 의미를 그 순간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난의 고통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작용 아래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걸어가는 첫 단계가 각자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과 부드러움을 발견하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교정된 비참함을 통해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유의 계단.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처럼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승하는 길로서 힘들지만, 동시에 자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자유로울수록,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 코린 13, 7)”. 아직 젊은 사제였을 때, 성 호세마리아는 충실한 자유의 상승 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계단: 하느님의 뜻에 체념하기,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기, 하느님의 뜻을 원하기,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기.”[184]

체념은 자유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네 가지 중 가장 덜 관대한 태도로, 쉽게 영적 미지근함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 없는 견딜, 즉 ‘견디기 위해 견디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저항을 통해서 자유를 배우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념은 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막연히 인식하기 때문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동안 이런 태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체념에 머물면 점차 슬픔이 마음을 침범합니다.

반면,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더 높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삶의 형태에 맞춰지고,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응을 평범한 사람의 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살아갈 꿈, 계획,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좋은 소망이 하느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현실적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응하는 사람은 조금씩 하느님의 논리에 들어가기로 배우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로마 8, 28 참조). 성 호세마리아는 때때로 성경의 이미지로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충실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 용기장이의 손 안의 진흙처럼. 그래서 제가 살지 않고, 당신께서, 사랑이신 분께서 제 안에서 살고 활동하실 것입니다”.[185]

하느님의 뜻을 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순응의 과정은 이미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당신께서, 사랑이신 분께서 살고 활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저의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186]라고 성녀 소화 데레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 바오로와 함께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물의 불완전함 한가운데서 상황들이 숨기고 있는 그 “거룩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187] 하느님의 모상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혈에 스며들어.

이 개인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사랑 앞에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 요한이 가르쳐 주듯이 그리스도교 계시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1 요한 4, 16).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 15). 이제 그들은 새 계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 이 사랑은 가장 큰 사랑으로, 그분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요한 10, 17-18). 그리스도교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자기 자신에서 나가는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바라신 현실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내부로부터 밀어내어 우리 자신에서 나가게 하는 기쁘고 창조적인 확신이며,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6, 25).

그러나 이 사랑은 “일종의 극단적인 도덕적 노력, 인본주의의 더 높은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188] 새 계명의 새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선물에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것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189].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계시하시는 동시에 사도들에게 사랑의 성사를 주십니다. 성체성사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교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 진리가 아니라 생명적 필요입니다.[190]

“그리스도의 손이 밀밭에서 우리를 잡아내셨습니다. 파종하는 이가 상처 난 손으로 밀 한 줌을 움켜잡니다. 그리스도의 성혈이 씨앗을 적시고, 스며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그 밀을 공중에 던지시니, 죽음으로써 생명이 되고, 땅에 묻혀서 황금 이삭으로 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혈에 스며들어 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으며, 그 성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죽어 기쁨과 평화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체성사 안에서 그분의 실재적 현존을 흠송하는 것은 중단 없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주는 하느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성체의 빵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체를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밀알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죽고, 생명으로 가득 차서 부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백 배로!”[192]

성체적 일치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서 그러셨듯이 우리 가운데를 걸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거리를 지나시고, 멈춰 서서 서두르지 않고 우리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193]. 누군가가 그분 곁을 걸어가기로, 그분과의 친교 안에서 살기로 결심할 때, 삶이 밝아지고 점차 진정한 “성체적 일치”를 얻게 됩니다.[194]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는 사랑과 가까움이 그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몰아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의무 이행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경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봉사에서 지나칠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의 한계 앞에서 이해 부족,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행의 인정을 요구하여 의향의 정직함을 흐리게 하는 교만.

성 호세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기쁜 삶에 대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길은 -그는 말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사랑하기. 사랑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갖는 것,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느끼는 것,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195] 우리는 이것이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자신과 같은 크기의 마음을 주시도록 자주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명료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 오직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재현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밀알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만 우리는 땅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결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196] 이것이 충실함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므로 행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폴 뮐러 신부

[184] 성 호세마리아, “길”, 774 번.

[185]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875 번. 예레미야 18,6 참조: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186] 성녀 소화 데레사, “한 영혼의 이야기”, 1 장.

[187] 성 호세마리아, “대화”, 114 번 참조.

[188] J. 라칭거 -- 베네딕토 16 세, “나자렛 예수”. “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 Encuentro, 바르셀로나 2011 년, 81 쪽.

[189] 같은 곳, 82 쪽.

[190]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54 번 참조.

[191] 같은 곳, 3 번.

[192] 같은 곳, 158 번.

[19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2019 년 3 월 25 일), 277 번.

[194] 베네딕토 16 세,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2007 년 2 월 22 일), 83 번 참조.

[195]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58 번.

[196] 같은 곳.

(XII). 신실함의 열매.

시편은 하느님과 그분의 법에 신실하려고 노력하며 불경한 자들이 조장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이의 풍요로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으니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시편 1, 1-3).

실제로 이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가르침입니다: “충실한 사람은 크게 칭찬받으리라” (잠언 28, 20); “의로움을 심는 자는 확실한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11, 18). 하느님의 모든 업적은 풍요로우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이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세워 주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였고, 너희 열매가 길이 남아 있게 하였다” (요한 15, 16).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분께 결합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 6).

수세기에 걸쳐 성인들도 하느님의 관대하심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숙소를제공하면 주님께서는 숙박비를 나쁘게 지불하지 않으신다”[197]. 그분께 충실한 이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 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곳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으로, 성덕과 덕행의 열매로 그 거룩한 기쁨 안에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며, 각 사람과 그들의 재능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약함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그들 주변의 사람들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는 것, 이것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 15, 8).

이 페이지들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맺는 몇 가지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열매들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많은 다른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까이 계심에 대한 감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천국.

천국으로 떠나기 불과 몇 주 전, 성 호세마리아는 한 무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장 풍부한 보화를 두고자 하셨습니다. (...)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상시에 천국이 있습니다”[198].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우정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현존.

매일 우리는 기도 중에 새로운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거룩한 현존의 진리를 관상하고 우리 기억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차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에 좋은 자녀로서 보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황금 성함에 머물기 위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늘보다 무한히 더 소중한 또 다른 하늘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영혼의 하늘”[199]. 이 거룩한 선물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보상을 받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피로가 올 때, 역경과 어려움이 거세질 때,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처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구적인 존재입니다”[200]라는 것을 다시 기억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 (참조: 요한 6,56)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안정감과 희망의 원천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점점 더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만들어 주고, 넓고 신뢰하는 시각, 긴장이 풀리고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화가 샘솟습니다. 이는 신실함과 헌신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복음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 호세마리아는 자신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매일 미사 중에 주님께 이를 청했습니다[201].

우리는 우리 집으로, 직장으로, 휴식의 장소로,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가져갈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평화의 부재를 자주 감지하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 호세마리아의 표현으로 '평화와 기쁨의 파종자'가 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합니다"[202].

우리는 경험상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느님의 현존을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물들을 전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파종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 범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국가들 간의 대규모 협상보다는 아마도 미소 짓고, 용서하고,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평범하며 꾸준한 자세에 더 의존할 것입니다"[203].

굳건하고 자비로운 마음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도록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내적 굳건함'을 얻게 되며, 이로부터 역경, 예기치 못한 일, 귀찮은 상황, 우리 자신의 한계와 다른 사람들의 한계 앞에서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아네는 "우리의 잘못은 하느님 자비의 큰 산 옆의 모래알과 같다"[204]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은 같은 사람들과 상황들 앞에서

하느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유함과 자비로 점점 더 반응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이 우리의 즉각적인 예상과 취향에 맞지 않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 뜻의 전달체이며 존경과 사랑으로, 기쁨과 평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205]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변명하고, 용서하는 더 큰 용이함을 점차 얻게 되며, 평화를 잃었다면 빨리 회복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비난받아 마땅해 보이는 다른 이들의 비참함이나 해를 끼치려는 어떤 사람들의 악의 앞에서 마음에 온유함과 자비를 기르려는 이런 자세가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벌을 내리자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기억합시다 (참조: 루카 9, 55).

“그리스도인의 프로그램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프로그램, 예수님의 프로그램- 은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필요한 곳을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206]. 역경 앞에서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의 인내하는 자비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참조: 시편 147, 3), 회개의 길을 더 쉽고 견디기 쉽게 만들어 주시는 향유가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요즘은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프로필을 알리는 것이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와 업무 환경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때로는 없어서는 안 될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과 함께 늘 계신다” [207]는 것을 잊는다면, 이러한 관심사는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팔로우되고, 심지어 감탄받고 싶어하는 어느 정도 은밀한 강박관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이런 열망은 사실 비록 조잡한 방식일지라도 깊은 진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하느님께서 각자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쉽게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단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랑과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 6, 1). 그리고 더욱 근본적으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 6, 3).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구하려는 이런 위험은 하느님께서 세심한 애정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사랑은

세심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잃을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들의 관람객을 원한다면, 여기 있다: 천사들, 대천사들, 그리고 우주의 하느님 자신까지” [208].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서는 항상 동반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이의 자존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기도와 삶의 효과를 신뢰하기 위해 특별한 외적 자극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든, 대다수에게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 6, 4).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자렛에서의 예수님의 숨겨진 세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지상에서의 생애 중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요셉의 세심한 시선 아래, 하느님의 아들은 이미 침묵 중에 무한한 효과로 인류의 구원을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곳에서, 갈릴래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소박한 목수 작업장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영원히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단순함으로 그분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같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성체감실의 숨겨진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

결합된 우리의 헌신적인 삶은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대가 진보했는지 또는 어느 정도나 진보한건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하는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대가 항구하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대가 더욱 빛을 받아서 더 먼 지평을 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우리의 지향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지향을 그대 자신의 지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09].

하느님은 언제나 그대로이시다.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 거슬러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것이다” (1 코린 15, 58).

성 호세마리아는 사도의 같은 권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신실하다면, 승리자라고 자칭할 수 있다. 너희 삶에서는 패배를 모르게 될 것이다. 의향이 올바르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우리는 승리했다. 사랑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210].

어떤 성소의 길에서든 한동안 헌신한 후에 낙담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리 관대하지 못했다거나, 우리의 신실함이 적은 열매를 맺고 사도적인 성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선택받은 자들은 결코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리라” (이사 65, 23).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효과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성인은 그 효과를 만지거나 보지 못할지라도” [211].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충실한 이들이 일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그들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우리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피곤할 때, 신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다: 우리의 효과가 “많은 경우 보이지 않으며, 셀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람은 자신의 삶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어떻게, 어디서, 언제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 계속 전진하자, 모든 것을 바치자, 또한 그분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도록 하자.” [212].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아닌 사물에 대한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포기과 신뢰로 일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주님께 맡길 때, 모든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일들이 --- 모든 노력과 적절한 수단을 다했음에도--- 네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213].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아무리 작고 숨겨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을 보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식은 “세계사나 우리 개인 존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순간들에서 확신과 낙관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그대로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악에서 선을, 패배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한 큰 승리를 이끌어내실 줄 아십니다” [214].

하느님의 손길을 받들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와 기쁨의 파종자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실현하시는 인내롭고 정성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감을 주시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신 큰일들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매일 이렇게 말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 38).

파블로 에도 신부

[197] 예수의 성녀 데레사, “완덕의 길”, 34 장

[198] 참조: S. 베르날, “몬시뇨르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 데 발라게르. 오푸스 데이 창립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 리알프, 마드리드 1980, 361 쪽

[199] 성녀 소화 데레사, “한 영혼의 이야기”, 5 장

[200]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벗들”, 92 번

[201] 참조: J. 에체바리아, “복자 호세마리아 에스κρι바의 기억”, 리알프, 마드리드 2000, 229 쪽

[202] F. 오카리스, 강론, 2017 년 5 월 12 일

[203] 위와 동일

[204] G. 바냐르, “아르스의 본당신부, 자비의 사도”, “교회사 연보” 19 (2010) 246 쪽

[205] “지시사항” 1935 년 5 월-1950 년 9 월 14 일, 48 번

[206] 베네딕토 16 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2005 년 12 월 25 일), 31 번

[207]: 성 호세마리아, “길”, 267 번: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별들이 빛나는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도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208]: 성 요한 크리스스토모, “마태복음 강해”, 19, 2 (PG 57, 275)

[209]: 성 호세마리아, “담금질”, 605 번

[210]: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과 홀로”, 314 번 (AGP, 도서관, P10)

[211]: “담금질”, 920 번

[212]: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2013 년 11 월 24 일), 279 번

[213]: 성 호세마리아, “밭고랑”, 860 번

[214]: J. 에체바리아, 사목서한, 2015 년 11 월 4 일.